

## 1 文章作法이란 것

문장(文章)이란 언어(文章)의 기록(記錄)이다. 언어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언어, 즉 말을 빼어놓고 글을 쓸 수 없다. 문자가 회화(繪畵)로 전화(轉化)하지 않는 한, 발음할 수 있는 문자(文字)인 한, 문장은 언어의 기록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근 보름만에 해스발다운 해스발을 보게 된 것은 겨우 어제 오늘 이틀뿐이다. 그러나 더위는 한칭 더 몽싯몽싯 찌는 듯하다.

廉想燮 氏의 소설 「사랑과 죄」에서

風雨寒雪에 對하여 우리가 이를 避할 수 있는 집이라는 安全地帶를 갖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 安全地帶인 우리들의 집 窓門에 우리가 서로 기대어 거리와 거리의 모든 生活이 霖霖히 내리는 細雨에 가벼이 덮이어 巨大한 봄을 沈湎시키고 있는 情景을 볼 때 누가 果然 그 마음이 기쁘지 않다 할 수 있으랴.

金晉燮 氏의 수필 「雨讚」의 一節

詩歌의 발생은 어느 나라,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아득한 옛적 일이다. 이를 極端으로 말하면 人間이 發生하는 同時에 詩歌가 發生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趙潤濟 氏의 「朝鮮詩歌史綱」 제1장 제1절 中

고요히 그짓는 손씨로  
방안 하나 차는 불빛!

벼란간 꽃다발에 안긴듯이  
올뻐이처럼 일어나 큰눈을 뜨다!

鄭芝溶 氏의 詩 「촉불과 손」의 一節

하나는 소설, 하나는 수필, 하나는 논문, 하나는 시이되, 모두 말을 문자로 적은 것들이다. 한자어(漢字語)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할 뿐, 성향(聲響)이 고운 말을 모으기도 하고 아니 모으기도 했을 뿐, 결국 말 이상의 것이나 말 이하의 것을 적은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장은 어떤 것이든 언어의 기록이다. 그러기에

말하듯 쓰면 된다.  
글이란 문자로 지껄이는 말이다.

하는 것이다. 글은 곧 말이다.

“벌써 진달래가 피었구나!”

를 지껄이면 말이요, 써놓으면 글이다. 본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듯이, 본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문자로 쓰면 곧 글이다. 아직 봄이 멀었거니 하다가 뜻밖에 진달래꽃을 보고 “벌써 진달래가 피었구나!”란 말쯤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또 문자만 알면 누구나 써놓을 수도 있다. 그럼 말을 알아 누구나 할 수 있듯이 글도 문자만 알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누구나 문자만 알면 쓸 수 있는 것이 글이다.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말은 쉽사리 하는 사람이 많되, 글은 쉽사리 써내는 사람이 적은가?

거기에 말과 글이 같으면서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과 글이 같으면서 다른 점은 여러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말은 청각(聽覺)에 이해시키는 것, 글은 시각(視覺)에 이해시키는 것도 다르다. 말은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사라지지만, 글은 공간적(空間的)으로 널리, 시간적(時間的)으로 얼마든지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더 긴절(緊切)한 지적으로는,

먼저, 글은 말처럼 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배워야 단자(單字)도 알고 기사법(記寫法)도 알게 되는 점이다. 말은 외국어가 아닌 이상엔 장성(長成)함에 따라 거의 의식적 노력이 없이 배워지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날마다 지껄이는 것이 절로 연습이 된다. 그래서 말만은 누구나 자기 생활만큼은 무려(無慮)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글은 배워야 알고, 연습해야 잘 쓸 수 있다.

또, 말은 머리로 꼬리로 없이 불쑥 나오는 대로, 한 마디 혹은 한두 마디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말은 한두 마디만 불쑥 나오되 제삼자에게 이해될 환경과 표정이 있어 지껄여지기 때문이다. 연설이나 무슨 식사(式辭) 외에는 앞에 할 말, 뒤에 할 말을 꼭 꾸며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요샌 한 이틀째 꽤 따뜻해. 아지랑이가 다 끼구…… 벌써 봄이야.”

이렇게 느껴지는대로, 생각나는대로, 지껄여버리면 말로는 완전히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야 누가 전후에 보충되는 다른 아무 말이 없이,

“요샌 한 이틀째 꽤 따뜻해. 아지랑이가 다 끼구…… 벌써 봄이야.”

이렇게만 써놓을 것인가. 이렇게만 써놓아도 문장은 문장이다. 그러나 한 구절, 혹은 몇 구절의 문장이지 실제로 발표할 수 있는 일제일편(一題一篇)의 글은 아니다. 혼자 보는 일기나, 비망록이나, “금일상경” 식의 전보약문이나, “일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마시오” 류의 표지(標識)이기 전에는, 글은, 공중(公衆)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간에 주고받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적든 크든 일편의 글로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요샌 한 이틀째 꽤 따뜻해. 아지랑이가 다 끼구…… 벌써 봄이야.”

이것은 말이요 몇 토막의 문장일뿐이다. 한 편 of 글은 아니다.

“요샌 한 이틀째 꽤 따뜻해. 아지랑이가 다 끼구…… 벌써 봄이야.”

이런 재료가 한 편, 한 제(題)의 글이 되기엔 적어도 얼마만한 계획과 선택과 조직이 필요한가는 다음 문례(文例)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早春

아침 해빛이 유리창밖으로 내다보히는 붉은 벽돌담 앞에 어리었다. 그 우로는 쪽빛 같은 푸른 하늘이 어슴프레 없하였다. 아래로 보이는 스리가라스에는 벽돌담이 日光에 反射하여 粉紅色으로 빛나고 다시 그 우로는 碧空이 마조 이어 보이는 色彩의 고운 對照는 무어라고 形容키 어려운 안타까운 情緒를 자아낸다.

동안 뜬 담우로는 아지랑이가 껴서 陽炎에 아물거린다. 그 우에 앉은 참새 두세 마리, 이따금 짹, 짹, 울어 周圍의 寂寞을 깨트릴 뿐, 고요한 빈 房에 홀로 부처같이 正坐하여 前景을 바라볼 때, 아! 그때의 心境! 그것은 淸淨, 憧憬, 祈禱, 情熱 等 複雜한 感情이 바도 속의 潮流같이 흘렀다.

初春! 昨今の 氣候는 어느듯 지난 時節의 그 때를 문득 追憶케 한다.

李箕永 氏의 「小品」

소품이나 이만한 조직체를 이룬 뒤에 비로소 한 제, 한 편의 글로 멋있는 것이다.

르나—르는 「배암」이란 제(題)에

너무 길었다

란 두 마디밖에는 쓰지 않은 것도 있으나, 그것은 「博物誌」라는 큰 작품의 일부로서였다.

그러면 글이 되려면 먼저 양(量)으로 길어야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지껄이는 말을 아무리 몇십 년 치를 기록해놓는대야 그것이 글 되기엔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고, 너무 연락이 없고 산만한 어록(語錄)의 나열일 것이다.

그러니까 글은 아무리 소품이든, 대작이든, 마치 개아미면 개아미, 호랑이면 호랑이처럼,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꼬리가 있는, 일종의 생명체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 구절,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체적인 글에 있어서는, 전체적이요 생명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 말에서보다 더 설계와 더 선택과 더 조직, 발전, 통제 등의 공부와 기술이 필요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필요되는 공부와 기술을 곧 문장작법이라 대명(代名)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짓는 데 무슨 별법(別法)이 있나? 그저 수긋하고 다독다작다상량(多讀多作多商量)하면 그만이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다. 지금도 생이지지(生而知之)하는 천재라면 오히려 삼다(三多)의 방법까지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배워야 아는 일반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리나 행동이나 모—든 표현이 기술화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견해와 이론, 즉 작법이 천재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명필 완당(阮堂) 김정희는 “寫蘭, 有法不可, 無法亦不可.”라 하였다. 문장에도 마찬가지다.

## 2 이미 있어 온 文章作法

문장작법은 이미 있었다.

동양의 수사(修辭)나 서양의 레토릭(Rhetoric)은 애초부터 문장작법은 아니요 변론술이었다. 문장보다는 언어가 먼저 있었고 출판술 이전에 변론술이 먼저 발달되어 수사법이니 레토릭이니는 다 말하는 기술로서의 기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 인쇄기가 발명되어 문장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말보다는 문장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수할 수 있어 문장은 연설보다 절대한 세력으로 인류의 문화를 지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 근대에 와 수사학(修辭學)은 말보다 글의 수식법(修飾法)으로서 완전히 전용되는 운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산문에서 이 수사를 이론한 바가 극히 적었다. 적으면 서도 과거의 문장을 읽어보면 수사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문장이 별로 없다. 비판이 없고 이 맹목적으로 한문체(漢文體)를 모방하여, 수사(修辭)로 인해 발달이 아니라 도리어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

金風이 瀟颯하고 玉露凋傷한대 滿山紅樹가 猶勝二月花辰이라 遠上  
白雲石逕하야 共詠停車坐愛楓林晚之句가 如何오.

어느 尺牘大方에서

친구에게 단풍구경을 가자고 청하는 편지다. 그런데 한 마디도 자기네 말이나 감정은 없다. 옥로조상(玉露凋傷)은 두시(杜詩) “玉露凋傷楓樹林”에서, 유승이월화진(猶勝二月花辰)이란 당시(唐詩) “霜葉紅於二月花”에서, 원산백운석경(遠

上白雲石逕)이란 “遠上寒山石逕斜 白雲深處有人家”에서, 정차좌애풍림만(停車坐愛楓林晚)이란 당시(唐詩) “停車坐愛楓林晚”에서 그대로, 모두 고전에서 따다 넣어 연락만 시킨 것뿐이다. 제 글보다 전고(典故)에서 널리 남의 글을 잘 따라 채우는 것이 과거 문장작법의 중요한 일문(一門)이었다.

얼마나 자기를, 개성을 몰각한 그릇된 문장 정신인가.

이 때, 좌수 비록 망치의 유언을 생각하나 후사를 아니 돌아볼 수 없는지라 이에 두루 혼처를 구하되 원하는 자 없으며 부득이하여 허씨를 취하매 그 용모를 의논할진대 양협은 한자이 넘고 눈은 통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미여기 같고 머리털은 돛태솔 같고 키는 장승만하고 소리는 시랑의 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 되고 그 중에 곰배파리며 수중다리에 쌍언챙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는 썩을면 열 사발이나 되고 엽기는 멍석 같으니 그 형용을 차마 견대어 보기 어려운 중, 그 용심이 더욱 불측하여……

「薔花紅蓮傳」의 一節

장화(薔花)와 홍련(紅蓮)의 계모되는 허씨의 묘사다. 이런 인물이 사실로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중에도 가장 특징될 만한 것만 한두 가지를 지적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춘향전」에, 이도령이 춘향의 집에 갔을 때, 과실을 내오는 장면 같은 데도 보면, 그 계절에 있고없고, 그 지방에 나든 안 나든 생각해볼 새 없이 천하의 과실 이름은 모조리 주워섬기는데, 그런 과장이 역시 과거 수사법이 끼친 중대한 폐해의 하나이다.

과거 우리 문학에 좋은 작품이 없었던 것은 먼저 좋은 문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춘향전」같은 것도 그 문장마저 전고(典故), 과장(誇張), 대구(對句) 등에 얽매이지 않았어보라, 얼마라 그대로 전승할 수 있는, 완전한 소설이요 완전한 희곡이었으랴!

동양에 있어 수사이론(修辭理論)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胡適은 그의 「文學改良芻議」에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조목을 든 것이다.

1. 언어만 있고 사물이 없는 글을 짓지 말 것  
(즉, 공소(空疏)한 관념만으로 꾸미지 말라는 것)

2. 병없이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 것.  
(공연히 오! 아! 류의 애상(哀傷)에 쓸리지 말라는 것)
3. 전고(典故)를 일삼지 말 것  
(위에서 예를 든 단풍구경 가자는 편지처럼)
4. 난조투어를 쓰지 말 것  
(허황한 미사여구를 쓰지 말라는 것)
5. 대구를 중요시하지 말 것
6.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말 것
7. 고인(古人)을 모방하지 말 것
8. 속어(俗語), 속자(俗字)를 쓰지 말 것

이 8개 항목 중에 1, 2, 3, 4, 5, 7의 여섯은 직접 간접으로 구수사이론(舊修辭理論)에 대한 항의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내려갈 사실은 것처럼 폐단이 많은 재래의 수사법이 과거에 있어선 무엇으로써 그렇듯 적응성을 가져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활판술이 유치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오늘처럼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 권 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수밖에 없었고, 또는 문맹인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한 사람이 읽되 소리를 내어 여러 사람을 들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소리를 내어 읽자니 문장이 먼저 낭독조로 써져야 할 필요가 생긴다. “문장 곧 말”만이 아니라 음악적인 일면이 더 한 가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은 아무리 진실한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읽기에 거북하거나 멋이 없는 문장은 널리 읽히지 못하였을 것이니, 쓰는 사람은 내용보다 먼저 문장에 난조투어(爛調套語)를 대구체(對句體)로 많이 넣어 노래조가 나오든 연설조가 나오든 아무튼 낭독자의 목청에 흥이 나도록 하기에 주의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의 수사법이란 문장을 위해서보다 사설(辭說)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문장을 낭독조로 수식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데다가 객관적 정세까지 그러하였으니 더욱 반성할 여지는 없이 전고(典故)와 과장과 대구(對句) 같은 데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3 새로 있을 文章作法

“쌀은 곡식의 하나다. 밥을 지어 먹는다.”

선생이 이런 문례(文例)를 주면

“무는 채소의 하나다. 김치를 담가 먹는다.”

이런 문장을 써놓아야 글을 잘 짓는 학생이었다. 자기의 감각이란 사용될 데가 없었다. 양자강 이남에서 “霜葉紅於二月花”라 한 것을 2월달에 꽃이라고는 냉이꽃이나 불지말지한 조선에 앉아서도 허턱 “滿山紅樹가 猶勝二月花辰”이라 하였다. 뜻이 어떻게 되든, 말이 닿든 안 닿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글을 지으면 된다. 자기 신경은 딱 봉해 두고 작문 그대로 문장의 조작(造作)이었다.

여기서 새로 있을 문장작법이란, 글을 짓는다는 거기에 대립해서

첫째, 말을 짓기로 해야 할 것이다. 글 짓기가 아니라 말 짓기라는 데 더욱 선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이 아니라 말이다.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가까운 것은 글보다 말이다. “글 곧 말”이라는 글에 입각한 문장관(文章觀)은 구식이다. “말 곧 마음”이라는 말에 입각해 최단거리에서 표현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장작법은 글을 어떻게 다듬을까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문자로 살되 감정으로 죽이는 수가 많았다. 이제부터의 문장작법은 글을 죽이더라도 먼저 말을 살려, 감정을 살려놓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 본위의 문장작법이어야 할 것이다. 말은 사회에 속한다. 개인의 것이 아니요 사회의 소유인 단어는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원칙적으로 부적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언어에 의해서 개인의식의 개인적인 것을 타인에게 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피관적인 결론을 가진 학자도 없지 않은 바다.

아무튼 현대는 문화만반(文化萬般)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사상의 교환을 현대인처럼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과 사상의 교환, 그 수단으로 문장처럼 편의(便宜)한 것이 없을 것이니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가능하기까지 방법을 탐구해야 할 것은 현대 문장 연구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 생각한다.



전화로 말소리를 그대로 들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저 쪽의 표정까지를 마주보는 시대가 되었다. 어찌 문장에서만 의연히 척독대방식(尺牘大方式), 만인적인 투식문장에다가 현대의 복잡다단한 자기의 표현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새로운 문장을 위한 작법이어야 할 것이다. 산 사람은 생활 그 자체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다. 고전과 전통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이란 어제보다 새 것이요, 내일은 다시 오늘보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또 생활은 오늘에서 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의식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 새 것에 부딪쳐나감을 어찌하는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보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자체가 무한한 새 날을 통과해나가는, 그 궤도에서 역행하지는 못한다. 어떤 평범한 생활자이든 불가불 새 것의 표현이 나날이 필요해지고 만다. 그러나 흔히 새 것을 새 것답게 표현하지 못하고 새 것을 의연히 구식으로 비효과적이게 표현해버리고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언어는 이미 존재한 것이다. 기성의 단어들이요 기성의 토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부딪쳐보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 경험한 단어나 토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이론이다. 회화에서처럼 제 감정대로 선이나 색채를 절대의 경지에서 그어버릴 수는 없지만 제삼자에게 통해질 수 있는 한에서는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문체에의 의도는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 불란서 문단에서 가장 비전통적 문장으로 비난을 받는 뿔 모랑은 자기가 비전통적 문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그 답변은 어느 곳 문장계에서나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완전한, 전통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불란서어로 무엇이 고 쓰고 싶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이 고 그런 것을 쓰기 전에 먼저 나에게나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다. 더욱 그 나로서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은 유감이지만 재래의 전통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불란서어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10 第1講 文章 作法의 새 意義

이 전통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말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란 뽕 모랑 일인에게만 한해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한다.

## 1 한 언어의 범위

언어는 어떤 언어나 고요한 자리에 놓고 위하기만 하는 미술품은 아니다. 일용 잡화와 마찬가지로 생활품으로 존재한다. 눈만 뜨면 불을 쓰듯, 물이나 비누를 쓰듯, 아니 그보다 더 절박하게 먼저 사용되는 것이 언어라 하겠다. 언어는 철두철미 생활품이다. 그러므로 잡화나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대로 언어는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고 한다.

爽快! 룩색에 가을을 지고

現代的週末休養을 爲한 土曜特輯

山川도리하는 좋은 씨—즌

이것은 소화(昭和) 12년 가을 어느 토요일, 「조선일보」의 산책지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룩색과 씨—즌은 외래어이다. 週末休養이니 토요일특집이니도 한자어 이긴 하나 전시대에 없던 새 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지 않고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길이 없기어든 가지야 못하리요마는 그 말미암을 땅이 어테며  
본이 없기어든 말이야 못하리요마는, 그 말미암을 바가 무엇이뇨.  
이러므로 감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말에는 반드시 본이 있게 되는  
것이로다.

金料奉 著 「말본」의 머리말의 一節

외래어나 한자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시험해보노라고 만든 것 같다. 더구나 그 「말본」의 본문에 들어가

쓰임: 1. 몸은 다른 씨 위에 쓰일 때가 있어도 뜻은 반드시 그 아래  
어느 씨씨에만 매임  
2. 짓골억과 빛갈억은 흔히 풀이로도 쓰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암호로 쓴 것 같이 보통상식으로  
는 이해할 수가 없다. 거의 저자 개인의 전용어란 느낌이 없지 않다. 개인  
전용어의 느낌을 주며라도 무슨 내용이든 다 써낼 수나 있을까가 의문이다.

扇風機의 動作에 關한 操出 空氣量, 發生壓力, 廻轉度, 所要馬力 及 效率  
等の 相互關係로 일어나는 變化狀況을 表示하는 것을 扇風機의 性能  
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쓰씨’ ‘짓골억’ 식 용어법으로 어떻게 제삼자에게 선뜻 인식되  
게 써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그는 <클락>에서 <캡>을 찾아 들고 <트라비아타>를 휘파람으로  
날리면서 <호텔>을 나섰다. 비개인 가을 아침, 길에는 샘물같이 서  
늘한 바람이 풍긴다. 이제 食堂에서 마신 짙은 <커피—> 향기를 다  
시 한번 입술에 느끼며 그는 언제든지 혼자 걷는 南山<코—쓰>를  
향해 電車길을 걷는다.

이 문장에서 클락, 캡, 트라비아타, 호텔, 커피—, 코—스 등의 외래어를 굳이  
안쓴다고 해보라. 이외에 무슨 말로 ‘그’라는 현대인의 생활을 묘사해낼 것인  
가? 만일 춘향이라도 그가 현대의 여성이라면 그도 머리를 퍼머넌트로 지질  
것이요 코티를 바르고 파라솔을 받고 초콜렛,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을 것  
이다. “흑운(黑雲) 같은 검은 머리, 반달 같은 와룡소(臥龍梳)로 살살 빗겨 전  
반같이 넓게 땅아……”나 “초록갑사 결막이” “초록우단 수운혜(繡雲鞋)” 이런  
말들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새 말을 만들고, 새 말을 쓰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유행 이상 엄숙하게, 생  
활에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사실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커피를 먹는 생활  
부터가 생기고, 퍼머넌트 식으로 머리를 지지는 생활부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응한 말 즉 커피, 퍼머넌트가 생기는 것이다.

교통이 발달되어 문화의 교류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신어(新語)가 많이 생길 것은 정한 이치로 어디 말이 와서든지 음과 의의가 그대로 차용되게 될 경우에는 그 말은 벌써 외국어가 아닌 것이다. 한자어든 영자어(英字語)든 개념할 필요가 없다. 그 단어가 들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적확(適確)한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엔 그 말들은 이미 여깃말로 여겨 안심하고 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신어의 남용으로, 넉넉히 표현할 수 있는 말에까지 버릇처럼 외국어를 꺼낼 필요는 없다. 신어를 남용함은 문장에 있어선 물론, 담화에 있어서도 어조의 천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나 현학(衒學)이 되는 것으로 보나 다 품위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2 언어의 표현 가능성과 불가능성

말은 사람이 의사를 표현하려는 필요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이나 다 표현해내는 전능력(全能力)은 없는 것이다. 말도 역시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한낱 생활도구다.

완미전능(完美全能)한 신품(神品)이 아니다. 뜻은 있는데, 발표하고 싶은 의식은 있는데 말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 옛날부터 이루 측량할 수 없다느니 불가명상(不可名狀)이니, 언어절(言語絶)이니 하는 말이 따로 발달되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한 언어에만 있는 결점이나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세계어인 영어에도 inexpressible이니 beyond expression이니 하는 유의 말이 얼마든지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 어느 언어에나 표현 불가능성의, 암흑의 일면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표현 가능의 면과 표현 불가능의 면이 언어마다 불일(不一)하다. 갑(甲) 언어엔 그런 경우의 말이 있는데 을(乙) 언어엔 그런 말이 없기도 하고, 을 언어에 그런 경우의 말이 있는 것이 갑 언어엔 없기도 하다.

영어 wild eye에 꼭 맞는 조선말이 없고 또 조선말의 뿔뿔이에 꼭 맞는 영어가 없다. 꼭 wild eye를 써야 할 데서는 조선말은 표현을 못하고 마는 것이요, 꼭 뿔뿔이를 써야 할 데서는 영어는 병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어느 언어가 아직 이 표현 불가능의 암흑면을 더 광대한 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은 지난한 연구재료의 하나러니와 우선, 어느 언어든 표현 가능성의 일

면과 아울러 표현 불가능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표현 불가능은 언어마다 불일(不一)해서 완전한 번역이란 영원히 불가능한 사실쯤은 알아야 하겠다.

이것을 의식하기 전엔 무엇을 번역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번역어가 없다고 해서 이 언어는 저 언어보다 표현력이 부족하니, 저 언어는 이 언어보다 우수하니 하고 부당한 단정을 하기 쉬운 것이다. 번역을 받는 원문은 이미 그 언어의 표현 가능면의 말로만 표현된 문장이다.

그런데 표현의 가능, 불가능면은 언어마다 불일하다. 나중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은 오히려 지당한 이치다. 이 우열감은, 하나는 구속이 없이 마음대로 표현한 것이요, 하나는 원문에 구속을 받고 재표현해야 되는 번역, 피(被) 번역의 위치관계이지 결코 어느 한 언어와 언어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언어에는 못 표현하는 면이 으레 있다 해서 자기의 표현욕을 쉽사리 단념할 바는 아니다. 산문이든 운문이든 문장가들의 언어에 대한 의무는 실로 이 못 표현하는 암흑면 타개에 있을 것이다. 눈매, 입모, 어깨짓 하나라도 표현은 발달하고 있다. 언어 문화만이 암흑면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 훌륭한 문장가란 모두 말의 채집자, 말의 개조 제조자들임을 기억할 것이다.

### 3 방언과 표준어의 문장

어느 말이든지 방언(方言)과 표준어가 있다. 방언이란, 언어학상으로는 얼마든지 복잡한 설명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사투리다. 그 한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색 있는(말소리로나 말투로나) 말이다.

아매 계심둥. (함경북도 지방)

할메미 기시는기요. (경상남도 지방)

클마니 계십네께. (평안북도 지방)

할매 계시유. (전라남도 지방)

할머니 계십니까. (경성 지방)

이렇게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른 중에 어느 도(道) 사람이나 다 비교적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성(京城, 서울) 지방 말 “할머니 계십니까”다.

경성은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리로도 중앙지대다. 동서남북 사람이 다 여기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성 말은 동서남북 말의 영향을 혼자 받기도 하고 또 혼자 동서남북 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 어느 편 사람 귀에도 가장 가까운 인연을 가진 것이 경성 말이다. 경성 말의 장점은 이것 뿐도 아니다. 인구가 한 곳에 가장 많기가 경성이니까 말이 가장 많이 지결여지는 데가 경성이다. 그러니까 말이 어디보다 세련되는 처소다.

또 제반문물의 발원지며 집산지이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다. 또 계급의 층하가 많고 유한(有閑)한 사람들의 사교가 많은 데라 말의 품(品)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느 편 사람이나 다함께 표준해야 할 말은 무엇으로 보나 경성 말이다.

경성말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돈’을 ‘둔’이라, ‘물라’를 ‘물러’라, 정육점을 ‘관’이라, ‘사시오’를 ‘드령’이라는 것 같은 것은, 결코 보편성도, 품위도 없는 말이다. 그러기에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를 사정(査定)할 때 경성 말을 본위로 하되, 중류 이하, 소위 ‘아래대말’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문장에서 방언을 쓸 것인가 표준어를 쓸 것인가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첫째, 널리 읽히자니 어느 도 사람에게나 쉬운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둘째, 같은 값이면 품 있는 문장을 써야겠으니 품 있는 말인, 표준어로 써야겠고,  
 셋째, 언문(言文)의 통일이란 큰 문화적 의의에서 표준어로 써야 할 의무가 문필인에게는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방언이 문장에서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방언이 존재하는 날까지는 방언이 방언 그대로 문장에 나올 필요가 있기도 하다.

만날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벧섬 줌 치워 달라우요.”

“남 줄음 오는데 남자 치우시관.”

“내가 치우나요?”

“이십 년이나 밥먹구 그걸 못 치워.”

“에이구, 꼭 죽구나 말디.”

“이년,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전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하릴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리어 나오게 되었다.

김동인 씨의 단편 「감자」의 일절

여기서 만일 복녀 부처(夫妻)의 대화를 표준어로 써보라. 칠성문(七星門)이 나오고, 기자묘(箕子墓)가 나오는 평양 배경의 인물들로 얼마나 현실감이 없어질 것인가?

작자 자신이 쓰는 말, 즉 지문(地文)은 절대로 표준어일 것이나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은 어느 지방의 사투리든 상관할 바 아니다.

물소리의 졸졸이니 새소리의 뻑뻑이니를 그대로 의음(擬音)해 효과를 내듯, 방언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란 것, 그곳이 어디란 것, 또 그 사람의 리얼리티를, 여러 설명이 없이 효과적이게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의음하는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나 방언이 존재하는 한, 또 그 지방인물이나 풍정(風情)을 기록하는 한, 의음의 효과로서 문장은 방언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4 담화와 문장

### (1) 담화와 문장을 구별할 것

말을 문자로 기록하면 문장인데 우선 그 말이란 것이 글쓰기가 좋게만 지껄여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뜻을 말하더라도, 경우 따라, 기분 따라 말의 조직이 달라진다.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요?”

를,

“비행길 타고 왔다죠 그 사람?”



하기도 한다. 즉 누구에게나 말 그것의 조직을 주의해 하는 경우와 말에는 관심할 여유가 없이 목적에만 급해서 호흡에 편한 대로 지껄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누구나 일상담화(日常談話)에서는 어체(語體)를 생각지 않는다.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지요”보다 “그 사람 비행길 타고 왔다죠”하는 편이 더 많다.

그러나 글을 쓸 때에는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 말할 때처럼 목적에 절박하지 않다. 천천히 단어와 토를 골라 조직에 관심할 여유가 있다. 그래 글로 쓸 때에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지요”로 많이 쓴다. 이것이 쓰는 사람에게나 읽는 사람에게나 다 관계가 되어 토가 완전히 다 달린 것은 담화보다 문장인 맛을 더 받고, 토가 약(略)해진 것은 문장보다 담화인 맛을 더 받는다.

이렇게 받아지는 맛이 다른 것을 글 쓰는 사람들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장으로 쓰는 말은 토를 완전히 달아 문장감을 살리고, 담화로 쓰는 말은 토를 호흡감이 나게 농간을 부려 담화풍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도 기름이 떨어졌느니, 초가 떨어졌느니 하고 안해가 사다 달라는 부탁이 다른 식모 때보다 감절이나 잣았다. 안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기름병이나 촛병을 막아놓고 쓰는 일이 없다 한다.

“꽤 힘들어 그걸 못 막우?”

하면

“쓸랴구 할 때 마개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딴세요.” 하고 남이 막아놓은 것까지 화를 내는 성미였다. 하 어떤 때는 성이 가시어 안해가

“그리구 어떻게 시집살일 했수?”

하면

“그래두 시아범 작잔 힘든 일 잘해낸다구 칭찬만 했는데요.”

하고 킬킬거리었고,

“그건 그런 힘든 일을 메누리한테 시키는 집이니까 그렇지 인제 가지게 사는 집으로 가두.”

“인제 내 살림이문 나두 잘허구 싶답니다.”

하는 뱃심이였다.

그는 별로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말도 없었고 조용히 앉기만 하면 다시 시집갈 궁리였다. 월급이라고 몇 원 받으면 그날 저녁엔 해도 지기 전에 저녁을 해치우고 문안으로 들어가서 분이니 크림이니 하는 화장품을 쓸데없이 여러 가지를 사들이었고, 우리가 무슨 접시나 찻잔 같은 것을 사오면 이진 얼마가요, 저진 얼마가요 하고 가운데 나서 덤비다가 으레

“나두 인제 살림힘 저런 거 사와야지…… 화신상회했죠?” 하고 버르는 것이다.

졸작 단편 「색시」의 일절

이 글에서 만일,

“뭘 힘들어 그걸 못 막우?”

를

“무엇이 힘이 들어 그것을 못 막우?”

한다든지,

“쓸랴구 할 때 마개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딴데요”

를

“쓰려고 할 때에 마개가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 해보라. 아무리 탄 줄로 끌어내어 쓴다 하더라도 어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산 인물의 면모가 비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쓰는 문장인가, 나오는 인물의 지껄이는 담화인가를 분명히 의식하고 가려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만 소설에서만 필요한 방법은 아니다.

## (2) 담화의 표현효과

글에서 담화를 인용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면

- (1) 인물의 의지, 감정, 성격의 실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 (2) 사건을 쉽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 (3) 담화 그 자체에 흥미가 있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담화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나오는 인물의 것이다. 글에서 인물의 다른 소유물은 보여줄 수 없되, 담화만은 그대로 기록해 보일 수 있다. 즉 그 인물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보일 수 있는 것은 담화뿐이다.

그런데 담화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보편적이요 가장 전적인 표현이다. 그 보편적이요 전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그 인물의 인상을 보편적이게, 전적이게 전해줄 것은 없다.

“쓸라구 할 때 마개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딴데요.”

한마디로 그 식모의 성미 팔팔한 것을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인제 내 살림이문 나두 잘허구 싶답니다.”

한마디로 그 식모의 뻥뻥스러운 것,

“나두 인제 살림힘 저런 거 사와야지…… 화신상회랬죠?”

한마디로 그 식모의 부러워 잘하는 것, ‘제 살림’을 어서 가져보고 싶어하는 생활욕에 타는 것들이, 또 이런 담화들의 총화(總和)에서는 그 식모의 유들유들한 외모까지도 긴 설명이 없이 드러나는 묘리가 있다.

담화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독자에게 단정시키는 귀중한 증거품이다.

인물들의 심리는 곧 인물들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를 단정시키는 담화는 곧 행동까지를 단정시킬 수 있어 담화의 한두 마디로 행동, 사건을 긴축, 비약시킬 수가 있다.

처음 어린것들이 담요를 밀고 당기게 되면 어른들은 서로 마주 보고 웃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 안해, 나 - 이 세 사람의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어색한 빛이 흘러서 극히 부자연스런 웃음이었다. K의 안해만이 상글상글 재미있게 웃었다.

담요를 서로 잡아다릴 때에 내 딸년이 끌리게 되면 얼굴이 발개서 어른들을 보면서 비죽비죽 울려 울려 하는 것은 후원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K의 아들도 끌리게 되면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서로들 어우러져서 싸우게 되면 어른들 낮에 웃음이 스러진다.

“이 계집애, 남의 애를 왜 때리느냐.”

K의 안해는 낮빛이 파래서 아들과 담요를 꼬집어다가 싸 업는다. 그러면 내 안해도 낮빛이 푸르러서

“우지 마라 우지 마. 이담에 아버지가 담요 사다 준다.”

하고 딸년을 꼬집어다가 젖을 물린다.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니! 응 흥!’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K의 안해가 어린것을 싸 업은 담요를 가리키면서 쉼게쉼게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되면 나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같은 처지에 있건마는 K의 안해나 아들의 낮에는 우월감이 흐르는 것 같고 우리는 그 가운데 접질리는 것 같은 것도 불쾌하지만 어린것이 서너 살 나도록 포대기 하나 변변히 못 지어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못생긴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린것이 말은 할 줄 모르고 그 담요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는 양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 며칠 뒤에 나는 일삿전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니 안해가 수건으로 머리를 싼 딸년을 안고 앉아서 쪽쪽 울고 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시고…… 나는 웬일이냐고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딸년 이름)가 머리 터졌다.”

어머니는 겨우 목구멍으로 우러나오는 소리로 말씀하시었다.

“네? 머리가 터지다뇨?”

“K의 아들이 담요를 만졌다고 인두로 때려……”

이번은 안해가 울면서 말하였다.

“응! 인두로……”

나는 나로도 알 수 없는 힘에 문밖으로 나아갔다. 어머니가 쫓아나오시면서

“애, 철없는 어린것들 싸움인데 그걸 타가지고 어른쌈 될라……”

하고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만 오도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나는 분한지 슬픈지 그저 멍한 것이 열빠진 사람 같았다. 모든 감정이 점점 가라앉고 비로소 내 의식에 돌아왔을 때 나는 눈물에 흐리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길로 거리에 달려가서 붉은 줄 누른 줄 푸른 줄 진 담요를 사 원 오십 전이나 주고 샀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 샀든지 사가지고 돌아설 때 양식 살 돈 없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마를 찡기는 동시에 흥! 하고 냉소도 하였다.

고 최학송의 단편 「담요」의 일부

담요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데 담화들이 얼마나 사건 기록을 경제(經濟)시키고 행동을 비약시키는가.

그런 객쩍은 생각을 구보(仇甫)가 하고 있을 때, 문득, 또 한 명의 계집이 생각난 듯이 물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정신병자 아닌 사람은 선생님 한 분이겠군요?”

구보는 웃고,

“왜 나두…… 나는, 내 병은, 다변증(多辯症)이라는 거라우.”

“무어요 다변증……”

“응, 다변증. 쓸데없이 잔소리 많은 것두 다아 정신병이라우.”

“그게 다변증이에요오.”

다른 두 계집도 입안말로 ‘다변증’ 하고 중얼거려보았다.

박태원의 단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담화 그것에 흥미가 있다. 그 글 전체에 균축이 되지 않는 정도로는 쓰는 자신도 즐기고, 읽는 남도 즐기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담화 자체의 미덕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물묘사가 많은 소설에서만 담화 인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담화로 시종하는 극(劇)은 위낙이 별개 문제려니와 보통 일반 기록에 있어서도 담화를 인용할 경우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형용할 때, 그의 행동거지만을 입내내지 않고 말투까지도 입내내는 때가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소설은 아닌 기록에서라도 한 인물이나, 인물의 어떤 정상(情狀)이나, 심리나, 환경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그런 때, 그 인물의 단적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음이 천언만어(千言萬語)의 구구한 설명보다 오히려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담화는 그냥 문장보다 두드러지는 것이다. 말을 하면 받는 사람이 있으니 대립감이 나오고 문장은 평면인데 어감은 입체적인 것이니 전문(全文)의 문태(文態)가 조각적(彫刻的)이요 동적일 수 있다. 반대로 담화가 적거나 없는 글이면 전체가 평면적이요 정적일 수 있다. 동적이어야 할 내용과 정적이어야 할 내용을 미리 가려서 담화를 계획적으로 넣고 안 넣고, 적게 넣고 많이 넣고 해서 표현을 보다 더 효과적이게 할 것이다.

### (3) 담화와 문장이 일여시(一如視)되는 경우

위에서 “자기가 쓰는 문장인가, 나오는 인물의 지껄이는 담화인가” 분명히 의식하고 가려 써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 쓰지 않은 것 같은 표현들이 여기 있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안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시시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군침이 도는 것이 쓸쓸하면서 다리팔이 척 늘어져서 노곤하다.

안해는 내 머리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안해 손이 이마에 선뜩한 것을 보면 신열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안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널름 받아 먹었다.

고 이상의 단편 「날개」의 일절

이 글에서 안해라는 인물의 말로 “약을 먹어야지”와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가 있는데 탄 줄로 끌어내지도 않았고 어세(語勢)도 지문세(地文勢)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저께가두 전화가 왔는데 낮잠을 자다 머리로 쓰다듬지 않고 달려온 옥희가 수화기를 떼어들이기가 무섭게 요새는 대체 게서 무슨 재미를 보구 있기에 내게는 밭그림자두 안하느냐고 내일이라도 곧 좀 올라오라고, 제일애 돈이 없어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내일 못 오더라도 돈은 전보환으로 부쳐주어야만 된다고,

그럼 꼭 믿고 있겠다고 한바탕 재겘이고 나서 응 그럼 꼭 믿구 있겠수 하고 전화를 끊기에 미쳐서야 생각난 듯이 참 몸이 편찮다 더니 요새는 좀 어떻수 하고 그런 말을 하였다고, 그는 그 계집의 음성까지를 교묘하게 훔내내어 내게 여실히 이야기하였다.

박태원의 단편 「거리」의 일절

어떤 여자가 전화로 한 담화, 그라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이야기해준 담화, 모두를 묘사하는 대신 작자 자신이 지껄이는 투로 써 내려가고 “그는 그 계집의 음성까지를 교묘하게 훔내내어 내게 여실히 이야기하였다”하였다.

그런데 이 두 글은 자기가 쓰는 ‘문장’인지, 인물의 ‘담화’인지, 그 취급이나 표현에나 의식이 없이 써진 것은 하나도 아니다. 취급엔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의식적 계획에서 담화를 탄 줄로 끌어내다, 어감대로 묘사하기를 피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는 당연히 문체론이 나와야 한다.

문체에 관하여는 아래에 제(題)를 달리해 말하겠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런 표현들은 담화를 의식적으로 지문에 섞고 섞더라도 담화만 두드러지지 않게 지문까지도 담화체로 쓴 것이란 것, 또는, 자기의 문체를 담화풍에게 쓰려니까, 담화가 지문과 그다지 대립감이 나지 않으니까 의식적으로 한데 섞어 쓴 것이란 것을 밝히는 데 그치려 한다.

#### (4) 담화술

말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중 전체의 것이다. 문장인 것에는 둔감한 독자라도 담화인 데서는 “그 인물에 어울리느니 안 어울리느니” 하는 평을 곧잘

한다. 글 쓰는 사람이 문장은 제 문체대로 쓸 수 있으나 말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것을 찾아놓는 데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인물의 말'을 찾는 데는 몇 가지 사고할 점이 있다.

#### 하나밖에 없는 말을 찾을 것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가지 경우의 말이란 무한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무한히 많은 것은 찾기 이전이요, 그 사람의 그 경우에 꼭 쓸 말이란 찾아만 들어간다면 구경(究竟)엔 한 가지 말밖에는 없을 것이다.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갯가 뱃사람 하나가 서울 구경을 오는데, 서울 가서나 뱃사람 티를 내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멀리 남대문의 문 열린 구멍을 바라보고 한다는 소리가,

“뚝 킷통구멍 같구나.”

해서 그에 뱃사람 티를 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만일 요즘 철로(鐵路) 공부(工夫)라면 궁급스럽게 목선(木船)의 키를 쫓는 구멍을 생각해내기 전에 철로의 터널부터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그 사람으로서 무심중 나와질 말, 말에 그 사람의 체취, 성미의 냄새, 그 사람의 때(垢)가 묻은 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말이란 얼마든지 있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일 것이다.

뱃사공이 남대문 구멍을 형용하는 데는 “뚝 킷통구멍 같구나”가 최적의 하나밖에 없는 말일 것이요, 철로 공부가 남대문 구멍을 형용하는 데는 “뚝 돈네루구멍 같구나”가 최적의, 하나밖에 없는 말일 것이다. 이 하나밖에 없는 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어감이 있게 써야 할 것이다

문장은 시각에 보이는 것이요 '담화'는 청각에 들려주는 것이다. 담화는 눈에 아니라 귀에니까 읽혀질 소리로 쓸 것이 아니라 들려질 소리로 써야 한다. 정말 말로 들리자면 어감이 나와야 한다.

“나 좀 봐요.”

“나를 좀 보아요.”



는, 뜻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 전자는 담화요 후자는 문장이다. 담화감이 나게 하고 문장감이 나게 하는 것은, 오직 어감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문례(文例)를 들어 설명하였거니와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히려는 것은, 그 때, 그 인물의 호흡에 더 관심을 해서,

무엇을 말하나?

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나?

에 주의하는 것이다.

“오늘 아무데도 안 갔구나.”

“아 영감께서 불러주시기 전에야 제가 갈 데가 어딴데요?”

“아따, 고것……”

“근데 참 왜 그렇게 빌 수 없어요?”

“응 좀 바빠서……”

“참 저어 춘향전 보셨어요?”

“춘향전이라니?”

“요새 단성사에서 놀리죠.”

“거 재밌나?”

“좋다고들 그래요. 오늘 동무 몇이서 구경 가자구 마쳤는데……

영감 같이 안 가시렵쇼?”

“가두 좋지만 글썽 좀 바빠서……”

박태원 「천변풍경」 중 민 주사와 취옥의 담화

‘근데’ ‘놀리죠’ ‘재밌나?’ ‘가시렵쇼’ 등을 보면 작자가 “어떻게 말하나?”에 얼마나 날카롭게 주의하였나를 넉넉히 엿볼 수 있다. 그러기에 상시(常時)에 여러 가지 인물이 여러 가지 경우에 무심코 지껄이는 어태(語態)를 사생(寫生)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생한 어록을 그대로 쓸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요, 또 쓰려는 내용에 맞도록 고치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고치는 어감에의 실력이란 사생과 수집에서처럼 쌓을 길이 없을 것이다.

## 성격적이게

담화를 그대로 끌어오는 것은, 인물의 의지와 감정과 성격의 실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라 하였다. 담화는 내용이 표시하는 뜻만이 아니라 인물의 품모까지 간접으로 나타내는 음영(陰影)이 있는 것이니, 제이의적(第二義的) 효과까지를 거두기 위해서는 뜻에 맞는 말이되, 되도록은 의지적이게, 감정적이게, 통틀어 성격적이게 시킬 필요가 있다.

제법 가을다음게 하늘이 맑고 또 높다. 더구나 오늘은 시월 들어서 첫 공일 —

그야 봄철같이 마음이 들뜰 덕은 없어도 그냥 이 하루를 집 속에서 보내기는 참말 아까워 그렇길래 삼복더위에도 탄말 없이 지낸 한약국 집 며느리가 조반을 치르고 나서

“참, 어디 좀 갔으면……”

옆에 앉은 남편이 들으라고 한 말이다.

“어디?”

물어주는 것을 기화로 그러나 원래 어디라 꼭 작정은 없던 것이라 되는데로

“인천—”

한 것을 의외에도 남편은 앞으로 나았으며

“인천?…… 그것두 준 말이야. 인천 가본 지두 참 오랜데……”

남편이 그러니까 젊은 안해도 참말 소녀와 같이 마음이 들떠

“돈 뭐 그렇게 많인 안 들죠?”

“돈이야 몇 푼 드나?…… 허지만 여행을 해두 괜찮을까?”

“뭘……?”

“이거 말야.”

그의 약간 나올까말까 한 배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스워

“아이 참 당신두…… 달 차구두 돌아댁기는 사람은 으떡허우?”

“으떡허긴 그런 사람들은 그럭허구 댁기다 기차 속에서두 낱구 전차 속에서두 낱구 그래 신문에 나구 법석이지.”

“어이 참 당신두……”

“책에두 삼사 개월 뒀을 때 조심허라지 았어?”

“글쎄 괜찮어요. 어디 먼데 가는 것두 아니구…… 기차를 탄대야  
그저 한 시간밖에 안되는걸……”

그래 두 사람은 어디 요 앞에 물건이라도 살 듯이 가든하게 차  
리고 경성역으로 나갔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중 한약국집 젊은 내외의 대화

‘참’이니 ‘아이 참’이니 하고, 비사고적인 감탄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쓰  
고, 또 ‘인천’ ‘꽤?’ 이런 한 개 단어만을 쓰기도 하고, “돈 뭐 그렇게 많인 안  
들죠?”니 “참, 어디 좀 갔으면……”하고, 목적에 급해 토가 나올 새 없이 단어만  
연달아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참후고(前參後考)할 새 없이, 돌발  
적이게 마음 솟는 대로 지껄이는, 아직도 소녀성(少女性)이 가시지 않은, 젊은  
여인의 성격이 훌륭히 보이는 말들이요,

“으떡허긴 그런 사람들은 그럭허구 댕기다 기차 속에서두 낱구 전차 속에서  
두 낱구 그래 신문에 나구 법석이지……”의 이죽거리는 품이나 “……낱구 ……  
낱구 그래……”하는 투와 “그것두 준 말이야” “허지만”이니의 늘어진 품은, 말  
자체로만 그의 아내와 대립적이 아니라 엿보이는 성격까지도 훌륭히 대립되어  
드러난다.

형님 되시는 왕의 문약(文弱)을 불만히 여기는 수양대군은 자연  
히 문학과 풍류를 좋아하는 아우님 안평대군이 미웠다. 더구나 안  
평대군이 근래에 와서 명망이 크게 떨치며 그의 한강 정자인 담담  
정(淡淡亭)과 자하문(紫霞門)밖 무이정사(武夷精舍)에는 날마다 풍류  
호걸들이 모여들어 질탕히 놀므로 세상에서 안평대군이 있는 줄은  
알고 수양대군이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 분하였고 더구나 형제분이  
혹시 서로 대할 때면 안평이 형님 되시는 수양을 가볍게 보는 빛이  
있을 때에 분하였다. 한번은 무슨 말 끝에

“형님이 무얼 아신다고 그러시오? 형님은 산에 가 토끼나 잡으  
슈.”

하고 수양대군이 활 쏘는 것밖에 능이 없는 것을 빈정거릴 때에 수  
양이 분노하여

“요 주둥이만 깐 것이.”

하고 벽에 걸린 활을 벗겨 든 일까지 있었다.

## 이광수 「단중애사」의 일부

아우님 안평대군이 형님 수양대군에게 하는 말로는 좀 과장되었다고 할 수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담화를 내세우는 것은, 그 인물과 그 사태의 성격적인 데를 단절이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니까 조화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의(語意) 어세(語勢)를 강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담화를 ‘성격적이게’란 말은 조화를 잃지 않는 정도의 강조를 의미한다 할 수도 있다. 그 인물, 그 사태에서, 가능한 정도로는, 정점적(頂點的)인, 초점적(焦點的)인 담화라야 할 것이다.

성격적인 것이란 개인과 개인이 다르다고 널리 보아버릴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게 성별로 남녀가 다르고, 또 같은 남성, 같은 여성끼리도 신분과 교양 따라 다르고, 또 동일인이라도 연령 따라 다른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진지 — 잡수셨습니까?

진지 — 잡셨습니까?

진지 — 잡수셨어요?

진지 — 잡셨어요?

진지 — 잡수셨어요?

진지 — 잡셨어요?

진지 — 잡수셨나요?

진지 — 잡셨나요?

진지 — 잡수셨수?

진지 — 잡셨수?

진지?

진진?

다 밥 먹었느냐 묻는 말이다. 그러나 다 말이 가지고 있는 신경이 다르다. “잡수셨습니까?” 하면 ‘까’가 몹시 차고 딱딱하고 경우 따라 밝고 도드라진다. “잡셨수”는 너무 텅텅해서 사십 이상 마나님의 흥허물없는 맛이 난다.

“잡수셨어요”나 “잡수셨나요”는 휘우뚱하는 리듬이 생긴다. 날씬한 젊은 여자의 몸태까지 보인다. 그냥 ‘진지’ 하는 단어만에는 은근한 맛이 나고 그 ‘진지’에 ㄴ을 붙여 ‘진진?’ 하면 액센트가 훨씬 또렷해진다. 말하는 사람의 명량한 눈이 보인다.

위에서 보거니와 받침의 농간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될 수 있는 대로 받침이 없는 말만 시키면 말이 가벼워질 것이요 받침이 있는 말만 시키면 무게와 탄력이 생기되 기이냐 디이 많이 나오면 거셀 것이요 나모리이 많이 나오면 연싹싹하고 매끄러워 대체로 명랑할 것이다. 뜻에 닿는 한에서는 성향(聲響)까지도 성격적인 것에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그런 데 가기 나는 싫어.
- ② 싫어 나는 그런 데 가기.
- ③ 나는 찬성할 수 없네 그런 데 가는 것.
- ④ 난 단연 불찬성 그런데 가는 건.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으려니와 ①과 ②는 단어들의 위치만 다르다. ①은 “그런 데 가기”란 설명부터 나왔고 ②는 “싫어 나는” 하고 의욕과 자기, 즉 주관부터 나와졌다. 아무래도 ②는 주관에 강한 성격이다.

③과 ④는 단어들의 위치가 다르기보다, 토가 있고 없는 것과 ‘단연’이란 단어가 있고 없는 것과, 하나는 ‘찬성할 수 없’이라 했는데 하나는 ‘불찬성’이라고 한 것이 다르다. 첫째, 토가 있고 없는 것인데, 토가 제대로 달리면 말이 느린 만큼 순하고 토가 없으면 급하다.

둘째 ‘단연’이란, 긍정과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다. 성향(聲響)까지도 ‘단연’은 나이 포개놓인 말이라 어의(語意), 어세(語勢)가 여간 강해지지 않는다. 셋째로, ‘찬성할 수 없’에는 설명인 ‘찬성할 수’가 먼저 나왔으니 순하고, ‘불찬성’에는 설명보다 ‘불’이란 의욕부터 먼저 나왔으니 훨씬 의지적이다. ④는 ③보다 몇 배 의지적인 성격이라 하겠다.

더욱 다음의 논설들을 참고하라.

言語의 美. 한 言語를 美化시키는 그것이야말로 文壇人의 特殊한 業務요 또 職責이 아니랄 수 없다. 그 言語의 美化程度를 가져서 그 言語에 所屬된 文學의 기리와 깊이를 함께 占칠 수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런데 萬一 美化라는 말이 軟文學의 巧句麗辭 卽 明治年代 所謂 星童派類의 吟詠으로 誤解될 憂慮가 있다면 言語의 洗鍊이라고 고치어도 無妨하다. 言語의 洗鍊은 너머나 意義가 汎博하기

때문으로 誤解를 무릅쓰고 美化라는 말을 썼을 뿐이다. 그러나 現在의 朝鮮語를 더한層 美化시키는 것도 오직 文壇人을 기다리어서 可能하겠지만은 朝鮮語가 目下 가지고 있는 美 그것도 그들의 힘을 빌어서 발휘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직도 文學的으로 發達되지 못한 朝鮮語에 무슨 美가 있겠느냐고는 물을지도 모르되 한 言語는 그 獨特한 文體를 가지듯이 반드시 獨特한 美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假令 ‘발장게, 벌정게, 불고레하게, 불구레하게’나 ‘과랑게, 퍼렁게, 포로소름하게, 푸루수름하게’ 등의 말을 살피어보라. 朝鮮語가 아닌 다른 말에 어디 그렇게 纖細한 色彩感覺이 나타나 있는가? 또 ‘이, 그, 저’나, ‘요, 고, 조’등의 指示詞를 살피어보라. 거기 도 朝鮮語 獨特한 맛이 있지 않은가?

홍기문 氏의 「문단인에게 향한 제의」의 일부

어감이란 것은 언어의 생활감 다시 말하면 언어의 생명력입니다. 어감 없이는 모든 말이 개념적으로 취급되어버립니다. 즉 어감 없는 말은 언어의 시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 상실자입니다. 이와 같이 어감은 언어활동에 있어서 생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상을 전달하는 언어활동은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표출자의 표현 효과를 훨씬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려 합니다. 대개 언어에는 의미 즉 뜻과 음성 즉 소리 두 방면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사’란 발음과 ‘람’이란 발음이 합하여 성립되어가지고 ‘인(人,사람)’이란 개념 즉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음은 말의 형식이요, 의미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어감이란 것이 이 형식과 내용에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형식 즉 발음이 어감을 규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가) 발음의 강약입니다. ‘바람’ ‘구름’ ‘달’ ‘꽃’등과 같은 명사라든지 ‘얼른’ ‘천천히’와 같은 부사라든지 ‘아름답다’ ‘탐스럽다’ 등의 형용사와 같은 동일한 어휘라도 그 발음의 강약은 무수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강약이 이와 같이 변화됨을 따라 그 말에 따르는 어감도 실로 무수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발음을 조절함으로써 그 말의 표현효과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발음의 지속 즉 장단(張短)입니다. 발음의 장단은 명사의 어감에도 크게 관계가 있겠지만, 형용사 부사 감탄사 같은 것에 더욱 크게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바람이 술술 분다’는 말과 ‘바람이 소—르소—르 분다’는 말이라든지 ‘걸음을 느릿느릿 걷는다’는 말과 ‘걸음을 느리—스느리—스 걷는다’는 말의 어감의 차는 지금 저의 발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용이히 판단하실 줄 압니다.

(다) 발음의 고저(高低)입니다. 이 발음의 고저는 발음의 강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발음의 강약은 음파의 진폭의 대소에 달렸음니다마는 그 고저는 음파의 진동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강음과 고음, 약음과 저음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저음인 동시에 강음이요, 모기 소리(蚊聲)는 약하면서도 높은 소립니다. 그리하여 이 고저가 또한 어감을 크게 좌우합니다.

(라) 발음 속에 섞인 모음의 명암입니다. 명랑한 모음이 포함되고 음암(陰暗, 컴컴)한 모음이 포함됨을 따라 그 말의 어감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그 의미까지 달라지다시피 합니다. 조선말에는 이와 같은 예가 꽤 많습니다. 명사로도 ‘가짓말’과 ‘거짓말’이라든지, ‘모가지’와 ‘며가지’, ‘뱅충이’와 ‘빙충이’ 등의 ‘가’ ‘모’ ‘뱅’이란 발음은 꽤 명랑하고 가벼운 소리요, ‘거’ ‘며’ ‘빙’이란 발음은 매우 어둡고 무거운 소립니다.

그러나, 형용사나 부사에 이런 예가 가장 많습니다.

동사… 빌어먹다—배라먹다/잘린다—졸린다

형용사… 보얗다—부엌다/ 까맣다—꺼멧다/ 하얗다—허엌다/ 까칠하다—꺼칠하다/ 복실복실하다—복술복술하다/ 배뚜름하다—비뚜름하다/ 싹쌀하다—쑤쓸하다/ 짹짹하다—쩍쩍하다 등의 예만 들겠습니다.

부사… 팔랑팔랑—필렁필렁/ 달랑달랑—덜렁덜렁/ 모락모락—  
 무럭무럭/ 바실바실—부실부실/ 발긏발긏—불긏불긏/ 복잡복  
 작—복적복적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어감의  
 차가 어찌나 심한지 명량한 모음을 포함한 말들을 얹잡아 하  
 는 말이라고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 (마) 발음 속에 섞인 자음의 예둔(銳鈍)입니다. 그 자음의 날카롭고  
 둔한 데 따라 역시 어감은 큰 차이가 납니다. 몇 개의 예를 말  
 씌었다면

명사… 주구령이—쭈구령이/ 족집게—쪽집게/ 고치—꼬치

동사… 떤다—툰다/ 반다—빤다

형용사… 검다—검다/ 발갳다—빨갳다/ 뜬뜬하다—튼튼하다/  
 감감하다—깜깜하다—깜깜하다

부사… 반작반작—뽀작뽀작/ 기웃기웃—끼웃끼웃/ 꼼실꼼실—  
 꼼실꼼실/ 부시시—뿌시시—푸시시/ 덜렁덜렁—떨렁떨렁—털  
 령털렁/ 번번히—뽀뽀히—편편히/ 바싹—바짝/ 재갈재갈—재  
 잘재잘

이상은 그 말 속에 포함된 자음의 날카롭고 둔함으로 인하여  
 어감이 사뭇 다른 것들입니다.

- (바) 접미음 혹은 접두음을 가진 말.

접미음을 가진 말… 뽀—뽀따귀/ 코—코빼기/ 눈—눈깔/ 배—  
 배때기/ 등—등덜미/ 팔—팔때기

접두음을 가진 말… 밟는다—짓밟는다/ 주무른다—짓주무른다/  
 자빠진다—나자빠진다/ 추진다—부추진다/ 질기다—검질기다

이상에 든 여섯 가지 조건은 주로 그 말의 ‘액센트’와 리듬 즉  
 운율을 규정하여가지고 각각 그 말의 독특한 어감을 나타내게 됩  
 니다. 대개 언어의 음성은 각각 독특한 청각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여러가지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등 다른 감각과도  
 서로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성  
 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각종의 감각을 통하여 결국 그 말의 의미



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실험적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호른보스텔(E. M. Hornbostel) 씨의 연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② 그리고 내용 즉 의미가 어감을 규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가) 계급성. 말의 계급성이란 것은 그 말이 경어(敬語)인가 비어(卑語)인가 보통 평등되는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잡숫는다—먹는다—치먹는다—치든지른다

이를테면

주무신다—잔다/ 계시다—있다/ 돌아가셨다—죽었다—거꾸러졌다

편치 않으시다—않는다

수라—메—진지—밥/ 간자—순갈

갱—국/ 치아—이—이빨

이점—이질 등

이 위에 예 든 말들은 그 의미는 똑같으면서도 상대자에 주는 인상은 다 다릅니다. 그리하여 상대자의 존비(尊卑) 친소(親疎)에 따라서 다 달리 써야 합니다. 참으로 이 조건이 어감으로는 다른 어느 조건보다도 중대성을 가졌습니다.

(나) 친밀성. 말의 친밀성이란 것은 상대자의 계급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친애(親愛) 정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즉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오라버니—오빠/ 형님—언니

이 아빠, 엄마 등의 말들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아이들이 쓰는 만큼 그 말들을 들어서 말할 수 없이 친애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상은 결국 언어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말의 품위와 리듬이 잘 조화 일치될 때에 그 말은 한 개의 단어로서 생동발랄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위에서 말씀한 것은 개개의 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어구라든지 문장 전체로서는 어떠한냐 하면 여러 개의 단어가 종합될 때에 또한 그 각개 단어의 발음이나 의미와 잘 조화되도록 전체로서의 억양(인토네이션)과 완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미와 음향이 훌륭한 선율(멜로디)과 울동이 창조될 것입니다. 언어가 이와같이 표현될 때에 그것은 듣는이에게 호감을 줄 뿐 아니라, 사상을 가장 완전히 전달할 수 있으며 언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술이 될 것입니다.

이희승 氏의 「언어 표현과 어감」의 일부

암시와 함축이 있게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곧

“배가 고파”

하고 솔직한 말을 해버린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 노련한 어른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간접적인 말을 쓰는 수가 많다.

“좀 시장한데.”

“좀 출출한데.”

이 말들은 “배가 고프는데”보다는 훨씬 덜 절박하게 들린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밥이 먹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들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워낙 “I Love You”를 직역한 말로 동양적인 감정의 말은 아니다. 동양인의 감정에는 이런 말을 마주 대고 하기가 뻔뻔스럽고 억지로 하면 신과 연극 같아서 오히려 진정(眞情)이 상한다.

“어머니!”

“엄마!”

하면 우리 감정으로는 어머니를 찾는, 자식의 진정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도 그 속에 다 함축되고 만다.

“오오 사랑하는 어머니이시여!”

하면, 서양식의 직역이거니와 호들갑스럽기만 해서 녀두리 잘하는 사람의 울음처럼 진정이 상하고 만다. 미인의 표정을 말하는데 ‘반함교태반함수(半含嬌態半含羞)’란 문구가 많이 돌아다니거나 노골적인 표정보다도 이면에 함축된 정염(情炎)에 더 매력을 느낄 줄 아는 동양인이라 감정표현이긴 마참가진 모든 예술의 표현도 노골적이기보다 암시와 함축에 더 존중해왔다.

이것은 우리 문화 전반에 있어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려니와 요즘 와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보는 서양 예술을 덮어놓고 본뜨게 되어 심지어는, 엽서 한 장에 쓰는 사연에다가도, 유서나 쓰는 것처럼

“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니

“당신의 사랑하는 XX로부터”

니 하고 허턱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한 자의 문자, 한마디의 말로 죽할 수 있으면 그것은 최상의 표현이다. ‘죽할 수’란 그 일 문자, 일 단어의 표면만이 아니라 배후의 실력, 즉 암시와 함축을 말함이다. 중국 고대소설 「수호지(水滸誌)」에 이런 묘한 한 자의 문자, 한마디의 말이 있었다.

그 제23회분에 반금련(潘金蓮)이란 여자가 나오는데 남편 무대(武大)는 못난 이요 시아재 무송(武松)은 인물 밝고 힘세어 호랑이를 때려잡아 상까지 탄 현장부(軒軒丈夫)다. 금련이 탄마음이 움직여 무송을 조용히 만나 술을 권하는데 ‘욕심사화(慾心似火)’에 이르기까지는 무송을 부르되 부르기를 39차를 하되 모두 ‘슈슈(叔叔, 아주버님)’라 하다가,

“반금련의 정욕이 불같아서 무송을 보지 못하면 초조해 못 견디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부젓가락을 집어 내던지고 스스로 술 한 잔을 따라 한입에 반잔을 마신 뒤 무송을 보고 말하기를

(……那婦人慾心似火不看武松焦燥便放了火筋却篩一盞酒來自啣了一口剩了大半盞看看武松道)”

에 이르러서는 ‘슈슈(叔叔)’로 부르지 않고 돌연히 ‘니(你, 여보)’라 불러

“당신이 만약 내게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마시고 남긴 이 반잔을 마시구려(你若有心喫我這半盞兒殘酒)”

라 하였다. 부젓가락을 집어 내던지며 술을 따라 제가 먼저 한입을 마시고 권하는 태도만으로도 정욕 심리가 나타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여태껏 ‘아주버니’라 부르던 형수가 갑자기 ‘여보’라 터놓은 것은, ‘여보’ 그 하나 단어에 반금련의 심리가 그만 전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여보’ 한마디 속에 팽창된 정욕의 덩어리 반금련이가 훌륭히 뭉쳐졌다. 그러기에 명문장 비평가 김성탄(金聖嘆)은 그 문구 밑에 주를 달되

“이미 앞에서 39번이나 아주버니라고 부르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홀연 ‘당신’ 한 마디로 이뤄낸 교묘한 필법(已上凡叫過三十九箇叔叔至此忽然換做一你字妙心妙筆)”

이라 감탄하였다.

김옥균은 금릉위(朴泳孝)와 함께 난간을 붙들고 서서 인제는 벌써 윤곽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고국의 육지가 놓여 있던 방위로 시선을 주었다.

조선이 인제는 보이지 않는구나! 자기들이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재거해올 때까지 저 땅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은 어찌면 흘러가는 물결에 싸여서 눈 깜짝하는 동안에 왔다가 다시 눈 깜짝하는 동안에 가버리는 물거품 모양으로 자기들은 지나가버리고 마는 인물이 되고 말지 아니할까?

그리고 조선은, 저 땅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장래로 자기들을 떼어버리고 달음질쳐서 목적인 대해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까? 혹은 중간에까지 흘러가다가 물거품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형적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없어지거나 아니할까. 이렇듯 지향없는 생각에 헤매이다가 그는 문득 조금 전 꿈속에서 들은 유대치 선생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이같이 말했다.

“요원한 내 뒤엎일을 뉘 알라? 다음 일은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해보는 것이다.”

김기진 氏의 「청년 김옥균」의 끝

긴 소설의 끝을 주인공의 혼자 지껄이는 말 한 귀절로 막았다. 이런 경우에 이 담화 일절은 유대치나 김옥균의 말로만 제한되는 표현은 아니다. 이 작품 전체의 점정(點睛)이 되기 때문에 작자 자신의 말로도 볼 수 있다.

유대치의 말일 수도 있고, 김옥균의 말일 수도 있고, 작자의 말일 수도 있는 것은, 이 말이 이 세 사람의 하고 싶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다. 이 함축 있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전작품이 천근 중량을 얻는 듯하다. 암시와 여운력을 가진 담화의 선이용(善利用)이라 할 수 있다.

## 5 의음어, 의태어와 문장

수수께끼에

“따꿈이 속에 뽀뽀이, 뽀뽀이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오드득이가 뭐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밤(栗)을 가리킨 것인데 모두 재미있게 감각어들로 상징되었다.

또 옛날 이야기에

이차떡을 늘어옴치래기,  
 흰떡을 해야반대기,  
 술을 올랑쫄랑이,  
 썰을 꺼—꺼푸드데기

라고 형용하는 것도 있다. 이런 데서도 우리는 감각어가 얼마나 풍부한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감각은 오관(五官)을 통해 얻는 의식이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다섯 신경에 자극되는 현상을 형용하는 말이 실로 놀랄만치 풍부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각에 있어 적색(赤色) 한 가지에도

붙다, 빨졌다, 빨갰다, 벌졌다, 벌-졌다, 새빨갰다, 시빨졌다, 불그스럼, 빨그스럼, 불그레, 빨그레, 불그레, 불그스럼, 보리끼레, 밭그레 등,

세밀한 시신경 성능을 말이 거의 남김없이 표현해낸다.

동물이 뛰는 것을 보고도

강충강충, 경충경충, 까불까불, 꺼불꺼불, 갑신갑신, 껌신껌신, 꺾실  
렁꺾실렁, 호닥닥, 후닥닥, 화닥닥 등,

의태(擬態) 용어에 띄 자유스럽다.

청각에서도 그야말로 풍성학루(風聲鶴淚) 계명구폐(鷄鳴狗吠), 모든 소리에 의음(擬音) 못할 것이 없다.

바람이

솔—솔, 살—살, 씩—씩, 쇠—쇠, 싸—싸, 앵—앵, 응—응, 윙—윙, 산  
들산들, 살랑살랑, 선들선들, 휘, 획……

미각에서도 감미(甘味)만 해도, 달다만이 아니요,

달다, 달콤하다, 달콤, 달크므레, 달착지근……

층하가 있고

후각에서도,

고소하다와 꼬소하다가 거리가 있고 고소와 구수, 꾸수

가 또 판판이다.

촉각에 있어서도 꺾꺾하지 않은 하나만이라도

매끈매끈, 반들반들, 번들번들, 반드르르, 번드르르, 반질반질, 반지  
르르, 번지르르, 뽀지르르, 으리으리, 알른알른, 알신알신 등,

얼마나 찰찰(察察)한가? 음악이나 회화에서처럼 얼마든지 감각되는 그대로 구체적이게 말해낼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란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뽁—하는 기차소리와 뚜—하는 기선소리를 뽁—과 뚜—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일 수 없다.

살랑살랑 지나가는 족제비의 걸음과 아실랑아실랑거리는 아낙네의 걸음을 살랑살랑, 아실랑아실랑으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수한 표현일 수 없다. 풍성구폐(風聲狗吠) 무슨 소리든 소리를 그대로 따라내는 의음어(擬音語)와 풍수주금(風水走禽) 무슨 동태(動態)이든 동태 그대로를 모의(模擬)하는 말이 많은 것은 언어로서 풍부는 물론, 곧 문장으로서, 표현으로서 풍부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遠山)은 첩첩 태산(泰山)은 주춤하야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 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興)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層巖絕壁上)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허유(巢父許由) 문답(問答)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유산가(遊山歌)」의 일절

바 다

바다는 뽀뽀이  
달어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쳤다.

이 엘 쓴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받혀 들었다!

지구는 연(蓮)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정지용 시집에서, 「바다」

찰찰, 주루루룩, 설설, 으르렁, 쿵쿵 등의 의음(擬音)과 주춤, 우줄우줄, 찰찰, 돌돌, 회동그란 등의 의태(擬態)가 얼마나 능란하게 문의(文意)의 구체성을 돕는 것인가?

운문의 경우엔 더욱 물론이지만, 산문에 있어서도 특히 묘사인 경우엔 이 풍부한 의음, 의태어를 되도록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문장의 독특한 성향미(聲響美)를 살리는 것도 된다. 黃眞伊의 노래

동지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둘에 내여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드란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 「동지달 지나긴 밤을」

를 신자하(申紫霞)가

截取冬之夜半强

春風被裏屈蟠藏

燈明酒煖郎來夕

曲曲舖成折折長

신자하

이라 번역한 것이 능역(能譯)이라 하나 ‘곡곡(曲曲)’ ‘절절(折折)’로는 원시의 구체성은 제이(第二)하고 성향만으로도 ‘서리서리’ ‘굽이굽이’의 말맛을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 6 한자어와 문장

‘푸른 하늘’하면 ‘푸른’은 푸른 뜻, ‘하늘’은 하늘이라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음 그대로가 뜻이요 뜻 그대로가 음이다.

‘청(靑)’이나 ‘천(天)’은 한자다. ‘청천(靑天)’이라 하면 한자어다. ‘청천’이란 음은 곧 뜻이 아니다. ‘청천’이란 음의 뜻은 ‘푸른 하늘’이다. 음은 ‘청천’ 뜻은 ‘푸른 하늘’ 이렇게 음과 뜻이 따로 있다.

소리가 곧 뜻인, ‘푸른 하늘’의 문장은 읽혀지는 소리가 곧 뜻인, 성의일원적(聲意一元的)인 문장이다.

소리와 뜻을 따로 가진 한자어로 된 문장은 읽혀지는 소리가 곧 뜻이 아닌, 성의이원적(聲意二元的)인 문장이다.

양복을 혼자 주섬주섬 떼어 입고 안방으로 나오려니까 아씨는 그저 뽀루통하여 경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가름자를 타고 있는 모양이다.

“오늘은 언제 들어오시라우? 회사 시간이 늦어도 좀 들러오시지.”

돌려다도 보지 않지 않고 연해 바가지를 굽다가 남편이 안방 문을 열려는 것을 거울 속으로 보고 입을 꾹싸게 놀린다.

“그 빌어먹을 전화, 내 이따 떼어버려야. 기생년하고 새벽부터 이야기하라구 옷을 껌혀가며 매었드람? 참 기가 막혀!…… 그럴 테면 마루에 매지 말구 아주 저 방에 매지.”

하며 구석방을 돌려다보다가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외면을 하더니 뺨드러한 머리말에 자름댕기를 감아서 뽀얀 오른편 볼을 잘룩 눌러 입에 물고 결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땡기 시작한다. 주인이 한참 바라보다가

“느느니 말숨씨로곤!”

하고 방 밖으로 휙 나오다가 좌우복창 사이에 달린 전화통을 건너다보았다. 네모 반듯한 나무갑 위에 나란히 엮힌 백통빛 새 종 두 개는 짧은 내외의 말다툼에 놀란 고양이 눈같이 커다랗게 뻗었다.

염상섭 氏의 단편 「전화」의 일부

소리가 모두 그대로들이어서, 새겨야 할 말이나 귀절이 없다. 생활어 그대로기 때문에 현실 광경이 노골적이게 드러난다. ‘주섬주섬’이니, ‘뽀루뽀’이니. “뽀뽀를한 머리밑에 빨간 자름댕기를 감아서 뽀얀 오른편 볼을 잘록 눌러 입에 물고 걸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니, “네모 반듯한 나무잡 위에 나란히 엮힌 백통빛 새 중 두 개는 젊은 내외의 말다툼에 놀란 고양이 눈같이 커다랗게 뽀뽀”이니 그 얼마나 표현에 구체력이 강한가.

“나는 벌써 處女가 아니다”라는 굳센 意識은 아직 굳지 않은 二十前後의 어린 마음에 君臨합니다. 그것은 마치 宗教信者의 破戒라는 것이, 決코 容易하지 않으나, 單 한 번의 失足이 反動的으로 墮落의 毒杯를 最後의 一滴까지 말리지 않으면 滿足할 수 없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性的 甘露에 한번 입을 대인 젊은 피의 躍動과 饑渴은 節制의 意志를 삼키어버렸습니다.

염상섭 氏의 단편 「제야(際夜)」의 일부

군림(君臨), 파계(破戒), 용이(容易), 실족(失足), 반동적(反動的), 타락(墮落), 독배(毒杯), 최후(最後), 일적(一滴), 만족(滿足), 성적(性的), 감로(甘露), 약동(躍動), 기갈(饑渴), 절제(節制), 의지(意志) 등 한자가 많이 섞이었다.

귀절마다 소리 이외에 딴 관념을 일으킨다. 내용이 보여지는 정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눈으로 어떤 정경을 보며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며 읽게 된다. 묘사이기보다는 논리인 편이다. 동일 작가의 문장이 되, 용어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묘사 분위라야 할 데서는 아무래도 한자어는 구체력이 적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장이란 모두가 묘사를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대부분은 묘사이나 학문과 논설은 묘사가 아니라 이론이다.

나는 한편으로 덮어놓고 漢文學을 排斥하기만 하는 인사에게 할 말이 있다. 漢文學은 數千年의 傳統을 가지어온 世界에 가장 悠久한 淵源과 豊富한 內容을 가진 人類文化의 重要한 遺産이요, 더구나 우리의 文化와는 일천년래 深甚한 關係를 맺어온 것이다. 文學 自體로 보드래도 그것이 當然히 英米文學보다 못지않게(或은 그 이상) 우리의 知識의 一斷層을 形成하여야 할 것은 저 西人이 希臘의 古典修養을

必要로 하는 것 以上이려니와 더구나 우리 文化의 底流에는 우리의 思惟와 感情에는 아직도 漢文學의 暖流와 血脈이 通하여 있느니만치 우리 文化의 過去와 現在를 洞察함에 있어서 우리는 到底히 漢文學을 否認할 수 없다. 우리는 自文化의 樹立宣揚을 爲하는 나머지 性急하게 漢文學을 拒否함이 無謀한 態度임을 안다. 하물며 이 傳統的인 底流를 모르고 極히 皮相的인 西文學에만 心醉하여 漢文學을 輕視하는 態度는 性急과 淺慮 以外的 아모것도 아니다.

卑近한 一例를 든다면 遺事나 史記나 退溪나 花潭이나 乃至 星湖, 茶山, 阮堂의 學을 일즉이 了解한 것도 없이 朝鮮文學을 하노라 하면 그것은 전혀 妄發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다 漢文學의 素養을 必要로 한다. 우리의 要求하는 새로운 知識은 先人の 文化遺産을 먼저 그 自體를 嚴密히 調査檢討하여 그 속에 깊이 沈潛游泳한 뒤에, 그것을 다시 嚴正한 科學的體系로써 새로운 方法論으로써 研究, 整理, 規定하는 것이다. 無論 後者 없는 前者의 知識만은 죽은 機械的, 骨董의 素材 知識에 不過하고 도로혀 종종 그 素材조차 歪曲, 曲解할 處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前者의 豫備한 知識이 먼저 蓄積되지 않은 後者の 判斷은 一種 冒險, 無謀에 가깝다. 텍스트와 體系, 考證學과 方法論은 今後 嚴密한 統一을 要求한다.

양주동 氏의 「漢文學의 再吟味」의 일부

花潭의 學은 窮理盡性 思索體驗을 主로 삼아 言語文字로써 發表하기를 좋아 아니하여 그 著述이 매우 적고 上記數篇의 論文이란 것도 극히 簡單하여 說이 未盡한 感이 없지 아니하나 그래도 그의 高遠한 哲學的 思想은 이에 依하여 잘 窺知되고 그 意味로 보아 이들 論文을 收集한 <花潭集> 一冊은 吾人이 貴重히 여기는 바의 하나이다. 花潭의 思想의 大體는 李珣의 說破함과 같이 宋의 張橫渠(載)流의 思想에 屬하되 間或 獨創의 見과 自得의 妙가 없지 아니하며 그 宇宙의 根底를 들여다보려함이 比較的 深刻하였다. 지금 花潭의 宇宙本體觀에 就하여 보면 그는 橫渠와 같이 宇宙의 本體를 太虛에 不過한양으로 생각하고, 太虛의 淡然無形한 것은 先天의 氣로서, 이는 時間空間의 制約에서 전혀 獨立한 無制限·無始終·恒久不滅의 實在라고 認하였다.

## 이병도 氏의 「서화담 급(及) 이연방에 대한 소고」 중의 일절

이런 문장들에서 한자어들의 정당한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음 뒤에 뜻을 따로 가진 것은 글자 그 자체의 함축이다. 함축이란, 어구, 문장 그 자체의 비밀이요 여유다.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니까 독자가 시각적으로 만족하지만, 인물도, 아무 사건도 보이지 않는 문장에서는 어구나 문장 그 자체까지 아무 맛볼 것이 없다면 읽는 데 너무나 흥미 없는 노력만이 부담될 것이다.

그러기에 문예(文藝) 문장에서도 아무 시각적 흥미가 없는 수필류의 문장은 한자가 섞인 편이 훨씬 읽기 좋고 풍치(風致)가 난다.

## 田園의 樂

耕山釣水는 田園生活의 逸趣이다.

都市文明이 發展될수록 都市人은 한편으로 田園의 情趣를 그리워 하여 園藝를 가꾸며 別莊을 둔다. 아마도 오늘날 農村人이 都市의 娛樂에 끌리는 以上으로 都市人이 田園의 誘惑을 받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人類는 本來 自然의 따스한 품속에 안겨 土香을 맡으면서 손수 여름지이를 하던것이니 이것이 神聖한 生活이요 또 生活의 大本일는지 모른다.

이른바 雲水로써 鄉을 삼고 鳥獸로써 群을 삼는 逃世者流는 좋은 것이 아니나 躬耕의 餘暇에 혹은 林間에서 採藥도 하고 혹은 川邊에서 垂釣도 하여 太平世의 一逸民으로써 淸淨하게 生活함은 누가 願하지 않으랴.

有水有山處 無榮無辱身.

이것은 高麗때 어느 士人이 벼슬을 내어놓고 田園으로 돌아가면서 自己의 所懷를 읊는 詩句이거나와 世間에 어느곳에 山水가 없으리요마는 榮辱의 係累만은 벗어나기 어렵다. 첫째 心身의 自由를 얻어야만 하는데 心身의 自由는 恬淡寡慾과 그보다도 生活安定을 받드시 前提要件으로 삼는다.

그렇지 않으면 山水 사이에 가 있어도 無榮無辱의 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詩句를 읊는 그로 말하면 아마도 그만쯤한

修養과 餘饒는 있던 모양이다. 아무리 簞食瓢欲의 淸貧哲學을 高調하는 분이라도 安貧樂道할 生活上 基礎가 없고서는 絶對 不可能할 것이 아닌가. 人生이 工夫는 高요한 곳에서 하고 實行은 奔走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倦怠해지면 다시 高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常例이니 田園生活은 倦怠者의 慰安所이다.

倦怠者뿐 아니라 病弱者에 있어서도 都市生活보다 田園生活이 有益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맑은 공기와 日光과 달콤한 泉水는 확실히 自然의 藥石이며, 좋은 山菜와 野蔬며 씹직한 果實은 참말로 膏粱 이상의 珍味이니 이것은 田園生活에서 받는 惠澤中の 몇가지로서 病弱者에게도 크게 必要한바이다.

欣然酌春酒 摘我園中蔬.

이것은 田園詩人 陶淵明의 名句로서 李益齋의 平生 愛誦하던바이다.

淸福이 있으면 近郊에 조그만 田園을 얻어서 감자와 一年감을 심고 또 羊이나 한마리 쳐서 그 것을 짜먹으며 살아볼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分外過望일른지 모른다.

고 문일평의 「영하만필(永夏漫筆)」 중에서

한자어는 술어(述語), 즉 교양어(教養語)가 많다. 교양인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려면 도저히 속어(俗語)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전원(田園)의 낙(樂)’에서도 한자어를 모조리 속어로 돌려놓는다 쳐보라. 얼마나 품(品)과 풍치가 감쇄될 것인가. 극히 개념적인, 생기없는 과거의 한자문체는 배격해 마땅할 것이나 한자어가 나온다 해서 필요범위 내의 한자어까지를 배척할 이유는 없다 생각한다.

속어만의 문장과, 한자어가 주로 쓰인 문장이 성격으로, 표현효과로 각이(各異)한 장단점을 가진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기에 자기가 표현하려는 내용이 속어만의 문장이어야 효과적일지, 한자어가 주로 씌어야 효과적일지, 또는 속어와 한자어를 반분반분 섞어야 효과적일지 한번 계획할 필요가 있다.

## 7 新語, 外來語와 文章

언어는 미술품이 아니라 잡화와 같은, 일상생활품이란 것, 신어(新語)나 외래어를 쓰는 것은 쓰고 싶어서기 전에 新語外來語의 생활부터가 생기니까 안 쓸 수 없으리란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하였다.

현대에 있어 남녀를 물론하고 傳來의 복장만으로는 실제에 불편하다. 洋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체로는, 시대와 생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양복을 입고 裝身品을 신식 것과 외국품으로 지닌다면 이른바 모던—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문장에서도 신어가 많이 나오면 같은 이치로 모던—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인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운 어족(魚族)들의 여행을 머리속에 그려본다. 난류(暖流)를 따라서 오늘은 진주의 촌락, 내일은 해초의 삼림으로 흘러댁기는 그 사치한 어족들. 그들에게는 천기예보(天氣豫報)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치 않다.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 식탁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어족의 여행 실패담이지만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보도 프랑코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그러나, 나는 둥글한 선창에 기대서 흡수선(吸水線)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초와 활발을 끝없이 사랑하리라.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하던 씨니룸에서 씹는 수박맛은 얼마나 더 청신하랴. 만약에 제비같이 재빨거리기 좋아하는 이국(異國)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른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경한 땅이 나보다 적으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랴!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고 하면 나는 진심으로 그를 경탄할 것이다. 허나 나는 결코 남도(南道) 온천장에는 들르지 않겠다. 북도(北道) 온천장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 남도 온천장이란 소란해서 위선 잠을 잘 수가 없다. 지난 봄엔가 나는 먼 길에 지친 끝에 하룻밤 숙면을 찾아서 동래온천에 들른 일이 있다.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누워보는 온돌과 특히 병풍을 두른 방안이 매우 아담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밤이

되니까 글썽 여관집인테 새로 한시 두시까지 장고(長鼓)를 따려부시며 떠드는데는 실로 견딜 수 없어 미명(未明)을 기다려서 첫차로도망친 일이 있다. 우리는 일부러 신경쇠약을 찾아서 온천장으로 갈 필요는 없다. 나는 돌아오면서 동래온천장 市民諸君의 睡眠不足을 위해서 두고두고 걱정했다.

나는 ‘튜—리스트 뷰로—’로 달려간다. 술한 여행안내를 받아가지고 뒤져본다. 비록 직업일망정 사무원은 오늘조차 펍 다정한 친구라고 지너본다.

#### 김기림 氏의 수필 「여행」의 일절

트렁크, 호텔, 카인, 프랑코, 씨니롬, 튜—리스트 뷰로— 등 외래어와 난류, 어족, 천기예보, 여행권, 정보, 방송, 吃水線, 이국, 신경쇠약, 시민, 여행안내 등, 한자어라도 현대적인 뉘앙스를 가진 신어들이 연달아 나왔다.

참신하고 경쾌한 맛이 십이분(十二分) 풍겼다. 참신이나 경쾌만이 최상의 미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 따라 극단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요, 아무튼 말은 문장의 재료라 재료 따라 현대미가 나오고 고전미가 나오게 할 것은 복장이나 마찬가지로 단순한 이치란 것이다. 그러나 신품과 외래품을 많이 쓴다고만 스마트한 몸태가 나는 것은 아니다. 몸에 조화를 얻지 못하면 잡속(雜俗)을 면치 못한다. 문장에서 신어와 외래어만 쓴다고 스마트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에라야 신어나 외래어를 써서 아름다워질까? 그것은 간단하다. 신어와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질, 또는 신어와 외래어가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에 뿐이다. ‘여행’ 하더라도, ‘트렁크’를 들게 되고, ‘호텔’에 들게 되고, 차와 배에서 신문을 볼 것이니 ‘프랑코’도 나올 법하고. 배나 호텔에는 ‘씨니롬’이 있을 것이요, 차표를 미리 사기 위해서나 여행할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튜—리스트 뷰로—’에 찾아갈 것이니 이 모든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다.

즉 ‘여행’이란 내용에 이 외래어들이 조화되어 여행기분을 돋우는 것이다. 신어도 마찬가지로.

## 8 平語, 敬語와 文章

“나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이나 ‘없다’는 평범히 나오는 말이다. ‘저는’과 ‘없습니다’는 상대자를 존칭하는 정적(情的) 의식, 상대의식이 들어있다. ‘나는’과 ‘없다’는 들떠워놓고 여러 사람에게 하는 말 같고, ‘저는’과 ‘없습니다’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 같다. 평어(平語)는 공공연하고 경어(敬語)는 사적인 어감이다. 그래서 ‘읍니다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더 개인적인 호의와 친절이 느껴진다. 호의와 친절은 독자를 훨씬 빠르게 이해시키고 감동시킨다.

어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저씨는 나더러 뒷동산에 올라가  
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곧 가자고 하니까

“들어가서 어머님께 허락 말고 온.”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쳐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  
았읍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주고 머리를 다시 땅  
고 그리고 나를 아스라지도록 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셨읍니  
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온.”

하고 어머니는 크게 소리쳤읍니다.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게야요.

주요섭 氏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나긋나긋 읽는 사람의 귀 옆에 와 소곤거려 주는 것 같다. 내가 안 들어주면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딱 사적인, 개인적인 어감이다. 그래서 경어는 일  
인칭(나)으로 쓰는 데 적당하고 내용이 독자에게 위곡(委曲)히 호소할 필요가  
있는 회고류, 정한류(情恨類)와 권격류(勸激類)에 적당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情)으로써 나설 필요가 없는 일반 기록, 서술에 있어  
서는 경어는 도리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흠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할 점이다.



## 9 一切用語와 文章

전래어든, 신어든, 외래어든, 문장은 일체(一切)의 언어로 짜지는 직물이다. 언어에 따라 비단이 되고, 인조견이 되고, 무명이 되고 한다. 언어에 대한 인식과 세련이 없이 비단 문장을 짜지 못할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인식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유일어(唯一語)의 존재를 의식해야 한다.

### (1) 唯一語를 찾을 것

“한 가지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말밖에는 없다” 한 플로베르의 말은 너무나 유명하거니와 그에게서 배운 모빠상도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 말밖에는 없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선 한 동사밖에 없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선 한 형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 말, 그 한 동사, 그 한 형용사를 찾아내야 한다. 그 찾는 곤란을 피하고 아무런 말이나 갖다 대용(代用)함으로 만족하거나 비슷한 말로 맞추어버린다는지, 그런 말의 요술을 부려서는 안된다.

하였다.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오직 한 가지 말, 유일한 말, 다시없는 말, 그 말은 그 뜻에 가장 적합한 말을 가리킴이다. 가령, 비가 오는 동사에도

비가 온다.

비가 뿌린다.

비가 나린다.

비가 쏟아진다.

비가 퍼붓는다.

가 모두 정도가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달이 밝은 형용에도

달이 밝다.

달이 밝단—하다.

달이 흰—하다.

달이 환—하다.

가 모두 다르다. 달이 보이고 쨍쨍하게 밝은 데서는 ‘밝다’나 ‘밝단’인데 그 중에도 ‘밝단’이 더 쨍쨍한 맛이 날 것이요, 달은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는 데서는 ‘흰—’이나 ‘환—’인데 그 중에도 ‘흰—’이라 하면 멀리 보는 것이요 ‘환—’이라 하면 가까이 미닫이나 벽 같은 데 어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토에 있어서도

한번 죽기로 각오하고서야

한번 죽길 각오했을진댄

이 다르다. 뜻은 한 뜻이나 비장한 정도에 차가 크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였으나 대개는 속마음이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도 취를 보고 후덕스럽다고 생각은 아니할 것이요 할미새를 보고 진중하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요 도야지를 소담한 친구라고는 아니할 것이다. 토끼를 보고 방정맞아는 보이지마는 고양이처럼 표독스럽게는 아무리해도 아니 보이고 수탉은 걸걸은 하지마는 지혜롭게는 아니 보이며 뱀은 그림만 보아도 간특하고 독살스러워 구약(舊約) 작가의 저주(呪呪)를 받은 것이 과연이다— 해 보이고 개는 얼른 보기에는 험상스럽지마는 간교한 모양은 조금도 없다. 그는 충직하게 생기었다. 말은 깨끗하고 날래지마는 좀 믿음성이 적고 당나귀나 노새는 아무리 보아도 경망꾸러기다. 족제비가 살랑살랑 지나갈 때 아무라도 그 요망스러움을 느낄 것이요 두꺼비가 입을 넓적넓적하고 쭈그리고 앉은 것을 보면 아무가 보아도 능청스럽다.

이광수 氏의 「우덕송(牛德頌)」에서

이 글을 보면 한 마디의 형용마다 한 가지 동물의 모양, 성질이 눈에 보이듯 선뜻선뜻 나타난다.

수탉은 수탉, 족제비면 족제비다운 제일 적합한 말을 골라 형용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족제비가 살랑살랑 지나갈 때”를 “족제비가 설렁설렁 지나갈 때”라고 고친다면 그 아래 ‘요망스럽다’는 말을 수궁할 수 없을 것이다. ‘요망스럽다’는 것이 족제비의 성질에 알맞는 말이라면 그 ‘요망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렁실렁’보다 ‘살랑살랑’이 더 적합되는 형용어이다. 이런 경우에 ‘살랑살랑’은 제일 적합되는 말, 즉 유일어이다.

모빠상의 말대로 유일어를 찾는 노력을 피해 아무 말로나 비슷하게 꾸려버리는 것은, 자기가 정말 쓰려던 문장은 아니요 그에 비슷한 문장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쓰려던 문장은 끝내 못 쓰고 마는 것이다.

## (2) 말을 많이 알아야 할 것

유일어란 기중 골라진 말, 최후로 선택된 말임에 틀림없다. 선택이란, 만취일수(萬取一收)를 의미한다. 여럿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다. 먼저 여럿이 없이는 고를 수 없다. 먼저 말을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밝다’와 ‘밝단—’ 둘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은 달이 아직 솟지는 않고 멀리 산머리에 빛만 트인 것을 보고도 ‘밝다’ 아니면 ‘밝단—’으로밖에 형용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를 택하기만 했다고 유일어의 가치가 발휘될 것은 아니다. 유사어(類似語)는 있는 대로 전부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데만 유일어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먼저는 말 공부를 해야 한다. 말 공부라니까 무슨 학문어, 술어만이 아니다. 학문어, 술어는 일정해 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속어(俗語) 일체에 통효(通曉)해야 한다. 말 공부의 방법으로는,

- ① 듣는 것으로
- ② 읽는 것으로
- ③ 만드는 것으로

이 세 길일 것이다. 듣는 것과 읽는 것에 졸업 정도가 되어야 만들어 쓰는 데 비로소 짐작이 날 것이다.

## (3) 자기의 발견과 가공으로

“씩 그리워.”

“몹시 그리워.”

“못견디게 그리워.”

떡, 몹시, 못전디게, 다 떠돌아다니는 부사다. 아무나 지껄일 줄 아는 말이다. 그리움에 타는 지금에 내 속만을 처음으로 형용해보는 무슨 새로운 부사가 없을까 내 그리움을 강조시킬 내 말을 찾아냄이 마땅하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봄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뭇차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고 김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소월은 ‘사뭇차게’라 하였다. 힘차기도 하거니와 훌륭히 신선한 말이다.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에 ‘이제금’도 좋은 발견이다. ‘이제는’ 한다면 ‘지금엔’ 하면 ‘이제금’ 같은 향토적, 민요적인, 자기적인 풍경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해 협

포탄으로 뚫은 듯 동그란 선창(船窓)으로  
눈썹까지 부풀어오른 수평(水平)이 옛보고,

하늘이 한폭 내려앉아  
큰악한 암탐처럼 품고 있다.

투명한 어족(魚族)이 행렬하는 위치에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

망토 곁에 솟은 귀는 소라 속같이  
 소란한 무인도의 각적(角笛)을 불고—

해협(海峽) 오전 2시에 고독은 오롯한 원광(圓光)을 쓰다.  
 서러울 리 없는 눈물을 소녀처럼 짓자.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  
 다음날 항구의 개인 날세여!

항해는 정히 연애편처럼 비등하고  
 이제 어드메쯤 한밤의 태양이 피어오른다.

정지용 氏의 시 「해협」

함폭, 크낙, 훗, 오롯, 다 이 시인의 발견이요 가공이다.

세월이 빠른 것 같은 것은 고금인(古今人)이 다 같이 느끼는 바다. 고인과 금인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에는 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 많다.

세월은 유수(流水) 같다.  
 광음(光陰)이 살같이 지나……

진리는 의연하되 얼마나 케케묵은 형용인가? 귀에 배고 찢어서 도리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남이 이미 해놓은 말을 쓰는 것은 임내다. 세월이 빠른 것을 ‘유수 같다’ 한 것은, 처음 말한 그 사람의 발견이다. 정도 문제지만 남의 발견을 써선 안된다. 문장에 있어서야말로 특허권 도덕을 지켜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나로서 발견해 써야 한다.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觀兵式)입니다. 바람이 불면 갑주(甲冑) 부딪치는 소리가 우수수 납니다.

고 이상의 「성천 기행」의 일절

옥수수밭을 관병식으로 형용한 것은 李箱의 발견이다.

마스트 끝에 붉은 기가 하늘보다 곱다.  
 감람(甘藍) 포기포기 솟아오르듯 무성한 물이랑이여!

정지용 氏의 시 「다시 해협」의 일절

탐스런 물결이 갈피갈피 솟는 바다를 포기포기 무성한 감람밭에다 형용하였다.

남이 쓰던 묵은 말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신선하기도 한가?

좋은 글을 쓰려는 노력은 좋은 말을 쓰려는 노력일 것이다. 생활은 자꾸 새로워지고 있다. 말은 자꾸 낡아지고 있다. 말은 영구히 ‘현 것, 부족한 것’으로 존재한다. 글쓰는 사람은 전래어든, 신어든, 외래어든, 그, 오늘 아침부터라도 이미 존재해진 모든 언어들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끊임없는 새 언어의 탐구자라야 한다.

보편성만 있어 수모(誰某)에게나 편히 쓰일 수만 있는 말이면 누구의 발견이든, 가공이든 창작이든, 민중은 따른다. ‘느낌’이란 말도 근년에 누가 쓰기 시작해 퍼뜨린 말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하였다’도 ‘도다’나 ‘하니라’에 불만을 가진 누구의 발견일 것이다.

‘거니와’도 고어 냄새가 나면서도 ‘였지만’에 단조(單調)하여 새로 많이 쓰이는 새 맛의 토다. 과거의 조선 문장은 어휘는 풍부하면서도 토가 없는 한문맥(漢文脈)의 영향을 받아 토에 발달하지 못하였다. 신문학이 일어나며 문장에 있어 처음으로 고민한 것은 이 토였음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언어는 의, 식, 후보보다도 민중 전체가 평등하게 가지는 최대의 문화물이다. 문필인은 문장보다 먼저 언어에 책임이 큰 것은 누언(累言)할 필요가 없다.

## 1 운문과 산문은 다른 것

문자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부호가 아니라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음향을 가진다. 악기와 같이 음향이 나는 것을 이용하면 뜻, 사상뿐 아니라 기분, 정서를 음악적이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문장은 대체로 음향을 주로 하는 것과 뜻을 주로 하는 것으로 갈리게 된다.

음향을 주로 하는 글은 ‘운문(韻文)’ 또는 ‘율문(律文)’이라 하고 뜻을 주로 하는 글은 ‘산문(散文)’이라 일러오는데, 이 운문과 산문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을 의식하지 않고 반(半)운문, 반(半)산문인 글, 혹은 비(非)운문, 비(非)산문인 글을 써 표현 효과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이가 흔히 있으므로 여기에 잠깐 운문과 산문이 다름을 간략히나마 밝히려 한다.

## 2 운문

窓안에 헛는 燭불 놀과 離別하였관대  
 곁으로 눈물지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저 燭불 날과 같하여 속타는 줄 모르더라.

이개의 시조 「창안에 헛는 촛불」

이 글은 운문이다. 문장에 뜻만 읽힐 뿐 아니라 운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창안에(3글자) 헛는촛불(4글자) 놀과이별(4글자) 하였관대(4글자)

에는 음수(音數)에 벌써 계획적인 데가 있다. “창 안에 켜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해서”란 뜻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3·4, 3·4조의 율격(律格)이 나온다. 즉 뜻뿐이 아니요 음악적인 일면까지 가지고 있다. 이 음악적 일면이 나타나지 않게

창안에 켜 축불은 누구와 이별을 해서 걸으로 눈물을 흘리며 속이 타는 줄은 모르는 것일까. 저 축불은 나처럼 속이 타는 줄 모르고 있다.

해 보라. 이 글의 맛은 반 이상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면 이 글의 맛의 반 이상의 것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일면, 리듬에 있다. 운문은 리듬이 주(主)요 뜻이 종(從)이다. 먼저 즐겁거나 슬프거나 기분부터를 주고 사상은 나중에 준다.

아랑은 그의 「산문론」에서 “산문은 도보(徒步)요 운문은 무도(舞蹈)”라 하였다. 도보는 불일이 있어야 걷는다. 실용적인 행동이다. 춤은 불일이 있어 하는 행동이 아니다. 흥에 겨워야 절로 추어지는 것이다. 흥이 먼저 있고서야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다.

### 금(金)잔디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불는 불은  
가신 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에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

고 김소월의 시 「금잔디」

###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룹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고 김소월의 시 「가는 길」

“심심산천에도 금잔디”

나,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같은 리듬은 산새 소리와 강물 소리에 자라난, 소박하면서도 처량한 향토 정조의 가곡조가 썩 잘 풍기어진다.

이렇게 뜻이 아니라 모두 정서가 주가 되었고 정서는 설명으로 아니라 음조를 맞추어 직접 음악적으로 드러내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뜻으로 알릴 것인지 정(情)으로 알릴 것인지를 먼저 가려서 만일 뜻인 것보다 정인 것이면 철저히 운문에 입각해 표현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운문은 극단의 예를 든다면, 먼저 있는 곡조에 가사를 지어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창가(唱歌)처럼 부를 것은 아니라도 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니, 먼저 멜로디를 정하고 다음에 거기 맞는 말과 글자를 골라서 맞추는 것이 운문의 탄생 과정일 것이다.

### 3 산문

산문은 쉽게 말하면 줄글이다. 줄글이란 마디의 길고 짧음에 관심할 필요가 없이 뜻만을 내려쓰는 글이다. 천하의 문장 대부분, 과학, 논문, 사기(史記), 신문기사, 소설, 수필, 평론 모두가 산문이다.

이 강화(講話)가 역시 산문을 본위로 하는 것이며, 지금 이 강화를 쓰는 이 문장도 산문이다. 내가 알리고 싶은 뜻을, 생각을, 사상을, 감정을 실상답게 써나갈 뿐이다. 운문은 노래하듯 쓰는 것이라면 산문은 말하듯 쓰는 편이다.

“웃가지 꽃봉오리 아랫가지 낙화로다.”

하면 이것은 노래하듯 쓴 것이요,

“웃가지는 아직도 봉오리 채로 있는데, 아랫가지는 벌써 피었다 떨어진다.”

하면, 이것은 말하듯 쓴 글, 즉 산문이다. 발표하려는 뜻에 충실할 뿐, 결코 음조에 관심할 필요가 없다. 관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산문이란 오직 뜻에 충실한다.”

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틈엔지 음조에 관심이 되고 만다. 글을 쓸 때는 누구나 속으로 중얼거리 읽으며 쓴다. 읽으며 쓰다가는 읽기 좋도록 음조를 다듬게 된다. 음조를 다듬다가는 그만 ‘뜻에만 충실’을 지키지 못하기가 쉽다.

춘향이 집 당도하니, 월색은 방농(方濃)하고 송죽(松竹)은 은은한 데 취병(翠屏) 튼 난간(欄干) 하에 백두루미 당겨워요, 거울 같은 연못 속에 대접 같은 금붕어와 들쭉, 측백, 잣나무요 포도, 다래, 으름덩굴 휘휘친친 얼크러져 청풍(淸風)이 불 때마다 흔들흔들 춤을 춘다.

화계상(花階上) 올라보니, 동백, 춘백, 영산홍, 모란, 작약, 월계화, 난초, 지초, 파초, 치자, 동매, 춘매, 홍국, 백국, 유자, 감자, 능금, 복숭아, 사과, 황실, 청실, 앵도, 온갖 화초 갖은 과목, 층층이 심었는데……

「춘향전」 「옥중화」의 일절

뜻에 충실하기를 잊고 음조에 맹종되고 말았다. 운문을 읽는 것처럼 일종 흥취는 나뉘, 뜻은 거짓이 많다.

월색은(3글자) 방농하고(4글자) 송죽은(3글자) 은은한데(4글자) 취병  
 튜(3글자) 난간하에(4글자) 거울같은(4글자) 연못속에(4글자) 대접같은(4글자)  
 금붕어와(4글자) 들쭉측백(4글자) 잣나무요(4글자) 포도다  
 래(4글자) 으름덩굴(4글자) 휘휘친친(4글자) 얼크러져(4글자)……

3·4조, 혹은 4·4조가 전문(全文) 중 대부분이다. 이런 문장은 산문이라기보다, 또 운문이라기보다, 낭독문체라고 할까, 낭독하기 위해 다듬어진, 의식적인 일종 율문(律文)이다. 한 사람이 목청을 돋우어 멋지게 군소리를 넣어가며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고 즐긴다. 독자가 아니라 연자(演者)요, 청중이었다. 독서와는 거리가 먼 낭독 연기를 위해 씌어진 대본이다.

산문이 아니라 가사(歌詞) 그대로다. 그런데 이런 글,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보면 필사거나 인쇄거나 모두 즐겁로 되었기 때문에 무의식중 산문이 거니, 산문을 이렇게 써도 좋거니, 그보다, 무슨 글이든 이렇게 우선 낭독하기 좋아야 좋은 글이거니 여겨오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산문 발달을 더디게 한 큰 병폐의 하나였다.

커다란 체경 앞에 서니까 노인의 발가벗은 몸뚱이는 그냥 앙상하다. 아주 늙은 편은 아니건만 무섭게 말랐다. 곳곳이 뼈가 드러났다. 가슴패기는 똑 자라 배때기처럼 늑골(肋骨)이 나와 금이 생겨서 임금왕자를 두어 개나 그렸고, 양편 어깨는 움푹하니 앞으로 오므라졌으며 엉덩이에서부터 아래는 골격이 기다랗게 말라깽이일 뿐이다.

안희남의 단편 「노인」에서

기준이놈이 입원한 삼등병실에는 도합 환자 여섯 명이 들어 있었다. 태풍자(문둥이)같이 얼굴을 싸맨 사나이, 연주창이 났는지 턱을 잔뜩 싸매고 목도 잘 놀리지 못하는 젊은 사나이, 다릿매디가 굽아 터져서 다리를 찍어야 한다고 잉잉 울고 있는 사나이, 얼굴이 텅텅 부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주먹만한 어린애, 치질이 나서

노상 엉땡이를 움키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중년 사나이, 거게  
기준이까지 들어가서 만원이 되었다.

한설야의 단편 「술집」에서

뜻을 전하는 것 이외에 어디 무엇이 있는가? 일념 뜻에만 충실한 글이다. 뜻  
의 세계가 환하게 보인다. 이 환하게 보이는 뜻, 그것을 가리켜 나설 다른 것  
(음조)을 용허(容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증(實證), 이것은 산문의 육험(肉  
驗)이요 정신이다.

## 1 日記文의 要領

▲ 그날 하루의 중요한 견문, 처리사항, 감상, 사색 등의 사생활기 (私生活記)다.

누구나 ‘그날’이 있고 ‘그날’ 하루의 생활이 있다. ‘그날’은 자기 일생의 하로요, ‘그날’ 하루의 생활은 자기 전생명의 한토막이다. 질겁거나, 슬프거나, 질겁지도 슬프지도 않거나, ‘그날’의 하루를 말소하지는 못하는만큼 ‘그날’이란 언제 어느날이던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 하물며 질겨워서 잊어버리기 아까운 날, 슬퍼서 百千의 인생 感想을 새로 경험하는 날이라. 우리는 이런 의의있는 날을 곧잘 사진을 찍어 기념하는수가 있다. 그러나 사진이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같이 눈으로 볼수 있는 형태있는 사건이 아니고는 촬영을 할수가 없다. 인생의 苦樂, 重輕事가 반드시 형태를 갖는것에만 있지 않으니, 실연한 사람의 아픈 마음이 렌즈에 비쳐질리 없고, 釋迦나 耶蘇가 大悟를 얻은것도 형태없는 마음속에서였다. 누구나 그날그날의 잊어버리기 아까운, 의의있는 생활을 기록하는것이 일기이다. 보고드른것 가운데, 또 생각하고 행동한것 가운데 중요한것을 적어두는것은, 그것은 형태가 있는것이나 형태가 없는것이나 모조리 촬영한 생활전부의 앨범일것이다.

그러나 일기는 앨범과 같이 과거를 기념하는데만 의미가 다하지 않는다. 과거보다는 오히려 장래를 위해 의의가 더욱 크다.

첫째는, 수양이 된다. 그날 자기의 한일을 가치를 붙여 생각하게 될것이니 자기를 반성하는 날마다의 기회가 되고, 사무적으로도 정리와 清算을 얻는다.

둘째로는 문장 공부가 된다. ‘오늘은 여러날만에 날이 들어 내 기분이 다 청쾌해졌다’ 한 마디를 쓰더라도, 이것은 우선 생각을 정리해 문자로 표현한것이다. 생각이 되는대로는 얼른얼른 문장화하는 습관이 생기면 ‘글을 쓴다’는데 새삼스럽거나 겁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기는 남에게 보히려는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데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글쓰는 것이 어렵다는 압박을 받지 않고 글쓰는 공부가 된다.

세째, 관찰력과 사고력이 예리해진다. 건문한바에서 중요한 것을 취하자면 우선 경미한 사물에도 치밀한 관찰과 사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관찰과 사고가 치밀하기만 하면 ‘萬物靜觀皆自得’격으로 千事萬物의 진상, 奧義를 모조리 밝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기는 훌륭한 인생 自習이라 할 수 있다.

### 7월 X일 (金)

오늘부터 放學! 放學中엔 여름放學이 第一이다. 어제 和信서 사온 밑짚모자를 쓰고 捕蟲網을 메고 淸涼里로 나갔다. 淸涼里는 電車에서부터 싱그러운 풀내가 풍겼다. 동무가 없어 좀 심심했지만 호랑나비를 많이 만나 해 가는 줄 몰랐다.

호랑나비 일곱마리, 작은나비 흰것 노란것, 알룩이 모두 스물네마리, 청개고리 한마리, 매미도 벌써 낫는데 두마리나 통기기만 하고 모두 놓쳤다. 분했다. 나비는 모다 展翅板에 꽂아놓았다. 나비는 昆蟲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쁠가!

어떤 중학생의 일기다. ‘나’라는 자칭대명사가 하나도 없다. 일기에는 없는 편이 오히려 생활감이 더 절실히 느껴진다.

### 11월 X일 (水)

집에서 書留가 왔다. 時間이 늦어 돈을 찾지 못해서 小爲替채 主人에게 食費를 주고 거슬러 받았다. 거슬러 받은 것이 九圓, 新聞劄一圓二十錢을 내면 七圓八十錢, 속사쓰를 한벌 사면 용돈이 빠듯하겠다. 집에 곧 돈을 받았읍니다 하고 답장 써부치다.

순전히 사무적인 내용이다. 무엇을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감상을 체득한 기록이 아니라 집에서 돈 온것을 처리한, 또 처리할것과, 편지 답장한것뿐이다. 생활의 외면적인 기록뿐이어서 제삼자가 읽을 맛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일기로는 역시 사무적인 것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 X월 X일

오늘도 나는 겨드랑이에서 체온기를 꺼낼 때 조마조마하였다. 벌써 사오 일을 내리 두고 단 1도의 미열이 나를 안타깝게 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다행히도 고 1도의 열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나는 얼른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왔다. 늦은 봄, 벌써 모란이 이울고, 불두화(佛頭花)가 싱그럽게 피기 시작한다. 나는 흠내 향그러운 훈훈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아직 쇠약한 눈이라 현기가 나서 그만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이번, 20여 일을 앓는 동안, 나는 잊어버렸던 여러 예전 동무들을 생각해냈다. 그들 속에는 내 편에서 야속하다기보다 저 편에서 나의 무신(無信)함을 야속케 생각할 동무가 더 많았다. 나는 좀더 건강해지면 우선 동무들에게 편지부터 쓰리라.

내가 바쁘고, 내가 건강할 때는 잊었다가,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로울 때는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그들은 이미 무얼로나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마운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생활, 그것은 그리 좋은 생활이었을 리 없다.

어느 동무에게고, 내 자신도 그들이 외로운 때 생각나지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알고 싶은 일이다. 나는 무얼로나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학생의 일기)

제삼자도 읽을 맛이 있다. 맛만이 아니라 이 일기의 주인과 함께 수양됨이 있다. 내면생활의 기록은 훌륭히 문학에 접근할 뿐 아니라 내면생활이 풍부한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일기가 그들의 작품만 못하지 않게 예술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 (1) 일기와 기상

누구에게나, 그날 하루 기분에 날씨처럼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더구나 조선처럼 춘하추동 네 계절이 분명히 오고가고 하는 데서는 기상(氣象)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냥 청

(晴), 담(曇), 소우(小雨), 이렇게 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자기 생활에 들어온 기상을 인상적이게 써야겠다.

2월 X일

제법 날이 따뜻하다. 봄이 주는 공포! 야릇한 변태심리다. 겨울이 아직도 물러가지 말기를 바라는 심리다.

毛允淑씨 일기의 일절

12월 25일

대단히 추운 날이다. 하루 종일 책도 책다움게 읽지 못하고 벌써 해가 졌다. 음력으로 동지가 지난 지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치 길어진다고 하니, 지금쯤은 아마 한 시간도 넘어 길었겠지만, 웬일인지 내겐 짧게 생각된다.

저녁밥을 먹고 홀로 책상 앞에 앉았으니, 마음의 정적을 한층 더 깨닫게 된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생각의 갈피를 찾고 그 실끝을 잡아내려고 더듬었다. 어둠에 싸인 밖은 바람 소리가 지동치듯 하여, 더운 방에 들어앉은 나를, 마음으로 한없이 춥게 하였다.

朴英熙씨 일기의 일절

## (2) 일기와 사건

하루 세 끼 밥을 먹듯, 으레 있는 일, 학생이면 날마다 등교하는 것, 사무인이면 출근하는 것 같은 예사(例事)는 사건이 아니다. 작든, 크든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닌 일이라야 사건이다.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의하고, 주의하니까 가치를 붙여 생각하는 데 이른다. 무슨 사건이든 비판의식이 없이 기록하기만 하는 것은 신문기사처럼 ‘자기’라는 것은 없는 보도문일 따름이다. 일기에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1월 18일

두통이 나고 몸이 몹시 고단하였으나 열시 반부터 <대지(大地)> 시사회(試寫會)에 출석. M좌(座) 문간에서 대학교수를 만났다. <대지>를 보면서 나는 자꾸 조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지>가 갖고 있는 엑소티시즘에서 오는 흥미는 반감되리라 생각하였다.

어머니가 해산을 하고 바로 일어나 바느질을 하는 것쯤은 조선서는 항다반한 일인데 관객의 몇사람은 너무나 부자연하다고 야지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사진이다. <런던 머큐리>의 영화평에는 작년도의 최대 걸작이라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격칭할 것은 못되어도 근래에 드물게 보는 좋은 영화였다. 너무나 통속적 흥미에 타(墮)하였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통속적이라 해서 반드시 배척할 것도 아닐 것이다.

俞鎮午씨 일기의 일절

### (3) 일기와 감상

누구에게 있어서나 생활처럼 절실한 것은 없다. 절실한 생활이니까 생활에서 얻는 감상은 모두 절실하다. 공연히 꾸밈 필요가 없다. 돌은 다듬으면 오히려 돌의 무게가 없어 보이듯 워낙 자체가 절실한 것을 수식하다가는 도리어 절실미(切實味)를 죽인다. 문득 깨닫고 느껴짐을 솔직히만 적을 것이다.

X월 X일

오다가다 가다오는 도중에 창작에 대한 줄기가 생기나 국(局)에를 가면 잡무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 재롱에 그만 모두 다 상(想)들이 어디론지 씻은 듯이 잃어지고 마니, 딱한 일이다.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읽고 싶을 때 읽으면서, 쓰고 싶을 때 쓸 만한 여유가 있었으면 나는 그 이상 더 만족이 없겠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쓸데없는 생각이다.

金岸曙씨 일기의 일절

2월 X일

방이 아늑하여 책 읽기에 편하다. 그놈의 공상이란 것이 순간 순간마다 머리를 점하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게 하는 데는 딱 질색이다. 요새는 시라곤 죽어도 못 쓸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것은 시가 아니라 그저 기분에서 솟아나온 문구들인가 보다.

오늘도 제목 없는 시를 여러 번 생각해보았으나 종시 붓으로 옮기지 못했다. 나는 책을 한참 읽고 나면 무언지 쓰고 싶어지는 충동을 꼭 받는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못 썼다. 요새는 필벽이 머리에 큰 자리를 점하고 있다.

毛允淑씨 일기의 일절

#### (4) 일기와 서정(抒情)

거리에 나가 여러 사람에게 소리쳐 자랑하고 싶게 타오르는 정열, 그러나 자랑하자면 말은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슬픔도 없지 않은 것이다. 더욱 일기는 누구에게 보고가 아니니까 희비(喜悲)간에 그 정서의 동기를 적을 필요는 없다. 그 정서에 큰 쇼크를 주는 사태, 물정을 묘사하면 그 사물의 음영에는 자기의 정서가 반드시 깃들여지는 것이다.

5월 X일

방안에 햇살이 짝 퍼졌을 때 뻘꾸기 우는 소리에 열린 잠이 깨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렸다. ‘뻘꾸우욱’ ‘뻘꾸우욱’ 하는 소리도 나고 ‘뻘꾸’ ‘뻘꾸’ 마디마디를 툭툭 끊어서 우는 소리도 들렸다.

어느 것이나 내겐 다 서글픈 소리였다. 중에도 ‘뻘꾸우욱’ 하는 마디없는 소리가 더 마음을 흔들었다. 뻘꾸기 세상에든 무슨 원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가봐.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저리 쉽게 울라.

문을 열고 뻘꾸기 우는 방향을 찾아보았다. 앞산 푸른 숲 그윽이 서 있는 데서 우는 듯. 그 숲속엔 안개도 끼어 있어서 바람이 숲을 지날 때면 안개가 푸른 숲 위에 물결같이 넘실거렸다. 그런데서 뻘꾸는 자꾸만 울고 있었다. 울어라. 울어라.

崔貞熙씨의 일기체로 된 「靜寂記」의 一日分

## (5) 일기와 관찰

일기는 사생활기라 관찰도 대개 자기 신변을 범위로 한다. 신변 묘사가 많은 것이 일기의 특징일 것이다. 일엽(一葉)이 떨어짐을 보고 천하개추(天下皆秋)를 느끼는 것도 신변적인, 일기적인 관찰이다. 꽃씨 하나를 묻고 그것이 싹터 나오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일기에서나 맛볼 수 있는 관찰미일 것이다.

11월 23일

梅軒이 水仙花盆 둘을 갖다 준다. 하나는 한뼘이나 되는 전복껍질에 세멘트를 이겨 발을 달고 투술투술 붙은 잔 조개껍질들을 그냥 두어 天然한 情趣를 지니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작은 陶器인데 蓮葉形으로 우묵하게 되고 안은 蓮葉빛 걸은 대추빛이고 한 모르엔 게와 조개를 만들어 붙였다.

옛날 北京서 사온 것이 지금은 高價를 가지고 北京을 가도 구할수 없다 한다. 梅軒과 함께 二宮 앞 淸人塵에 가서 漳州서 온 水仙을 여덟뿌리 샀다. 양쪽에 덧뿌리가 달린 蟹形감으로 골랐다. 커도 푸석한 놈보다는 작아도 볼록하고 단단한 놈이 꽃망울이 많이 들었다. 其中 두 뿌리는 梅軒을 주었다.

11월 26일

蟹形水仙을 깎다. 그 형상을 보아 한쪽을 가로 자르고 그 속의 껍질 찢음을 차례차례 휘비어내다. 손을 너무 가볍게 눌러도 안되고 무겁게 눌러도 안된다. 性急히 굴다가는 꽃잎도 상하고 손도 다치겠다. 몇껍질을 벗겨내고 본즉 이파리 끝이 누렇게 보이고 그 줄기머리는 좀 볼록하다. 분명히 꽃망울이다. 자칫하면 터질까 하여 꺾조심스러이 칼질을 하였다. 꽃망울이 다섯이 나왔다. 또 한뿌리를 깎다. 이놈은 꽃망울이 셋인데 하나를 터쳤다. 몇뿌리를 더 깎으려다 말았다. 깎은 놈은 맑은 물을 떠다 담가두었다. 향긋한 香臭가 손끝에서도 움직인다.

李秉岐씨의 일기

(6) 일기와 사교

누가 찾아온 것, 누구를 찾아간 것, 편지를 보내고 받은 것, 누구와 무슨 약속한 것 대강은 요건과 인상을 적어둘 필요가 있다. 당시엔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도 뒷날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읽을 재미도 난다.

2월 X일

午後에 오래간만에 선회가 왔다. 小說 쓰기에 奔走한 모양, 머리속이 大端히 寂寞한 모양이나 내 手法이 가난하여 동무를 달래지 못했다. 무슨 찬란한 푸로그램이 우리 世上에 있을理 있나?

毛允淑씨 일기의 일절

X월 X일

해가 높다래서 잠이 깨었다. 흙통으로 눈 녹아내리고 물소리가 주르륵 주르륵 장마때같아 구슬프다.

열한시에 尹君과 만나자는 약속이 번뜩 머리에 떠올랐다.

허둥지둥 얼굴에 물칠만 하고, 늦잠 자는 버릇 빨리 고쳐야겠다 생각하며 부산히 本町으로 나갔다.

三十分이나 기다렸다고 시무룩한 얼굴이다. 하릴없이 껄껄 웃어 치우고 그대신 내가 점심을 사기로 했다. XX끄릴에서 會談 한時間, 結果는 좋지 못하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明治町 사거리에서 헤어졌다.

날이 따듯한 탓인지 사람들이 들볶아친다. 電車길까지 걸어오는 사이에 B, B, K 그리고 XX社 친구들 한떼, 숨쳐 여섯사람이나 만났다.

모두 즐거운 얼굴이다. 같이 놀러 가자고 끄는 것이었으나 머리가 무거워 구지 사양하고 혼자서 일찍 돌아왔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첫空日이었다.

우울한 日曜日이다.

鄭人澤씨의 일기